

I.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영국(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면적	243,610 km ² (자료원 : 영국 통계청)
수도	런던(London)
인구	66,435,600 명 (자료원 : 영국 통계청, 2020. 6. 기준)
민족(인종)	백인(86%), 아시아인(7.5%), 흑인(3.3%), 혼혈(2.2%), 기타(1%)
언어	영어(공용어), 웨일스어, 스코티시 게일릭, 아이리시 게일릭
종교	기독교(영국성공회, 로마가톨릭, 장로교, 감리교 포함)(59.3%), 무교(25.1%), 불특정교(7.2%), 이슬람교(4.8%), 힌두교(1.5%), 기타(2.1%)
기후	온대 해양성
국가원수	국가 원수: 엘리자베스 여왕 2세(Her Majesty Queen Elizabeth II) 총리(실권자):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국교 수립일

1883-11-26 (자료원 : 대한민국 외교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조영 통상조약	1883-11-26	조영 통상조약 체결	
잠정 항공협정	1954-08-29	잠정 항공협정 체결	
주한 영연방군 대여금 청산협정	1954-09-28	주한 영연방군 대여금 청산협정 체결	
항공협정	1960-05-26	서울-홍콩 간 항공업무 재개에 관한 한-영 항공협정 체결	
차관협정	1964-08-04	차관협정 체결	
항공협정	1967-05-10	항공협정 개정	
사증면제협정	1969-12-18	60일간 유효, 30일간 연장 가능	
항공협정	1970-04-30	서울-홍콩 간 항공업무 재개에 관한 한-영 항공협정 개정	
항공협정	1972-05-02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	1976-03-04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 체결	
공업소유권 보호협정	1978-02-19	공업소유권 보호협정 체결	
이중과세 방지협정	1978-05-13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	
문화협정	1982-07-12	문화협정 체결	
항공협정	1984-03-05	한-영 정부 간 각자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과학기술협력협정	1985-06-14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원자력협력협정	1991-11-27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해상운송협정	1995-07-10	해상운송협정 체결	
이중과세방지협정	1996-12-30	이중과세방지협정(신협약) 체결	
사회보장협정	2000-08-01	사회보장협정 체결	
영국문화원운영협정	2005-08-29	영국문화원운영협정 체결	
군사비밀보호협정	2010-06-21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	
사람인수협정	2012-06-01	사람인수협정 체결	
항공협정	2015-02-04	항공협정 개정	
조세정보교환협정	2016-11-21	조세정보교환협정	
군사비밀보호협정	2019-03-13	군사비밀보호협정 개정	

〈자료원 : 대한민국 외교부〉

한국교민 수

40,770 명 (자료원 : 대한민국 외교부(2020.6. 확인 가능 최신자료))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 문재인 대통령 방영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0월 19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 참석차 벨기에 방문 중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두 나라 사이의 우호협력 증진 방안과 한반도 평화 정착 등 공동의 관심사에 관해 협의했다. 두 정상은 한·영 정상회담에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에도 무역과 투자 관계를 포함한 양국의 우호협력관계가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메이 전 총리는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약속했다.

경제

○ 무역작업반 설치

2016년 6월 영국의 브렉시트가 결정됨에 따라 2016년 12월 제3차 한·영 경제 통상공동위원회(JETCO)에서 양국은 새로운 경제 통상관계 정립 및 에너지 신산업 등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장관은 양국 통상관계가 브렉시트 이후에도 공백없이 유지되고, 나아가 최소한 한-EU FTA 수준 이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무역작업반(Trade Working Group)을 설치해 한영 FTA 추진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2017년 2월 1차 한·영 무역작업반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무역작업반 운영지침 및 작업계획에 관한 논의를 했고, 2차 회의는 2017년 12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어 브렉시트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한-EU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누리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3차 회의는 2018년 9월 20일 서울에서 개최되어 브렉시트에 관한 진전사항을 공유하고 양국 업계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한영간 무역투자 관계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후 2019년 6월 10일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한 FTA가 원칙적 타결 됐다. 해당 합의는 영국이 EU에서 정식으로 탈퇴하기 전까지 '임시조치(Emergency bridge)' 역할을 한다.

문화

○ 주영 한국 문화원 개원

2008년 1월 30일, 영국 런던의 중심가인 트라팔가 광장 인근 지역에 주영 한국 문화원이 개설됐다. 주영 한국 문화원은故 백남준 씨를 비롯한 한국 출신 작가들의 작품 전시, 한국어 강좌, 한국 음식 체험 등의 행사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 ‘한영 상호교류의 해’ 지정

‘2017~18 한영 상호 교류의 해’는 2016년의 한국과 영국 양국 정부 간 협의를 바탕으로 문화 교류를 통해 양국 간의 친선을 도모하고 중장기 문화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년간 양국에서 83개의 프로젝트와 275개의 문화행사가 열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영국을 대표하는 예술 및 예술가를 비롯한 한영 신진예술가 간의 협업프로젝트를 선보였다.

3. 경제지표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5	2016	2017	2018	2019
경제성장률 (%)	2.19	1.81	1.82	1.4	1.24
명목GDP (십억\$)	2,897.06	2,669.11	2,640.07	2,828.83	2,761.59
1인당 GDP (PPP, \$)	42,116.55	42,959.08	44,301.43	45,740.76	46,826.97
1인당 명목 GDP (\$)	44,494.86	40,657.86	39,976.78	42,579.82	41,030.23
정부부채 (% of GDP)	87.88	87.91	87.14	86.82	85.55
물가상승률 (%)	0.04	0.66	2.68	2.48	1.81
실업률 (%)	5.38	4.88	4.43	4.08	3.81
수출액 (백만\$)	438,056.36	404,129.52	436,508.99	468,136.81	475,719.15
수입액 (백만\$)	618,094.03	583,214.44	613,030.43	652,331.78	641,629.95
무역수지 (백만\$)	-180,037.67	-179,084.92	-176,521.44	-184,194.97	-165,910.8
외환 보유고 (백만\$)	138,018.58	123,969.69	138,420.99	160,357.57	158,858.52
이자율 (%)	0.5	0.25	-	-	-
환율 (자국통화)	0.65	0.74	0.78	0.75	0.78

〈자료원 : IMF〉

경제 동향

브렉시트 불확실성 때문에 지난 3년간 경제 둔화가 지속되던 영국 경제는 2020년 3월부터 코로나 19 전염이 확산되고 정부의 봉쇄조치가 시행되면서 경제지표가 더욱 감소했다. 5월까지 3개월간 영국의 GDP 성장은 -19.1%를 기록했으며, 경기 침체, 실업률 증가 등 전반적인 소비 심리 위축 때문에 1분기 가계 소비는 1.7% 감소, 생산은 2.4% 감소했다. 영란은행은 지난 3월 기준 금리를 0.1%로 인하했고 영국 정부는 3월, 경제 부양을 위해 보조금 지원, 금융 지원, 세금 감면 계획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한 추가 정책을 통해 기업에 정부 보증 대출을 늘리고 고용 유지 제도, 청년 일자리 지원 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이행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영국과 EU의 미래 관계 협상 타결이 2020년 내로 이루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제 전망

IMF는 2020년 1월, 영국이 EU와의 미래관계를 점진적으로 이행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경제성장률을 1.4%로 예측했으나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타격 및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경제성장률을 -10.2%로 조정했다. 6월부터 봉쇄 조치가 점차 완화되면서 경제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으나, 최근 예산책임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V자형 경제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2022년 말이 되어야 코로나 19 사태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으리라 전망하고 있다.

II.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5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69,381,206,892
2	독일	46,631,518,224
3	스위스	34,021,568,839
4	중화인민공화국	27,625,408,709
5	프랑스	27,275,621,837
6	네덜란드	26,457,523,601
7	아일랜드	25,499,052,381
8	벨기에	17,715,047,885
9	스페인	13,536,202,825
10	이탈리아	12,871,487,540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61,568,659,268
2	독일	43,797,383,589
3	프랑스	26,461,827,772
4	네덜란드	25,484,748,059
5	아일랜드	22,901,408,456
6	스위스	19,774,332,505
7	중화인민공화국	18,142,280,186
8	벨기에	15,715,522,064
9	이탈리아	13,123,471,995

10	스페인	13,029,685,111
----	-----	----------------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59,188,510,675
2	독일	46,697,785,542
3	프랑스	30,406,166,024
4	네덜란드	27,575,186,169
5	아일랜드	25,107,561,263
6	중화인민공화국	21,379,902,935
7	스위스	20,283,924,179
8	벨기에	17,763,434,952
9	스페인	13,477,443,556
10	이탈리아	13,202,176,866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66,858,168,719
2	독일	48,657,310,847
3	스위스	43,666,773,387
4	네덜란드	35,802,768,733
5	프랑스	33,636,176,791
6	아일랜드	29,617,104,775
7	중화인민공화국	28,423,361,212
8	벨기에	20,206,755,948
9	스페인	14,558,152,138
10	이탈리아	14,417,418,347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74,010,044,329

2	독일	46,893,011,891
3	프랑스	31,792,570,803
4	네덜란드	30,662,544,840
5	중화인민공화국	30,154,259,717
6	아일랜드	27,802,004,357
7	벨기에	17,112,806,608
8	스위스	15,625,945,459
9	스페인	13,864,413,065
10	이탈리아	12,811,324,506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5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94,348,064,382
2	중화인민공화국	62,979,613,764
3	미국	58,066,453,965
4	네덜란드	47,549,003,521
5	프랑스	38,703,822,308
6	벨기에	31,402,186,225
7	이탈리아	25,055,800,479
8	스페인	21,605,506,627
9	아일랜드	19,178,937,559
10	노르웨이	18,720,533,682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88,077,491,043
2	중화인민공화국	59,575,883,133
3	미국	57,103,332,370
4	네덜란드	47,382,169,489

5	프랑스	35,949,856,996
6	벨기에	31,522,505,629
7	스위스	26,596,303,166
8	이탈리아	24,155,104,768
9	스페인	21,251,195,907
10	아일랜드	18,158,772,440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89,695,411,028
2	중화인민공화국	59,862,521,699
3	미국	58,829,027,051
4	네덜란드	51,411,282,512
5	프랑스	36,502,467,141
6	벨기에	32,156,471,752
7	이탈리아	24,965,338,233
8	노르웨이	23,166,542,287
9	스페인	20,198,042,724
10	아일랜드	18,760,824,917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94,259,535,487
2	중화인민공화국	64,120,621,145
3	미국	64,116,154,465
4	네덜란드	60,918,881,505
5	프랑스	39,594,640,143
6	벨기에	35,868,830,312
7	이탈리아	27,755,317,657
8	노르웨이	26,401,397,595
9	스페인	24,375,348,639

10	캐나다	22,561,819,752
----	-----	----------------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86,230,663,336
2	미국	67,280,389,504
3	중화인민공화국	65,529,526,028
4	네덜란드	54,052,096,203
5	프랑스	39,027,239,097
6	벨기에	32,349,433,669
7	이탈리아	26,713,093,646
8	스위스	24,451,085,334
9	스페인	22,160,377,540
10	노르웨이	19,934,964,287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최근 5년)

2015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38,515,617,887
2	300490	기타	20,353,496,614
3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6,192,669,157
4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3,568,288,557
5	880330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	13,511,103,669
6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인 것	13,280,853,854
7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9,533,378,920
8	841112	추진력이 25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9,240,998,269
9	841191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7,559,260,946
10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6,489,503,287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300490	기타	17,468,964,923
2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15,545,174,105
3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인 것	14,435,779,326
4	880330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	13,680,977,677
5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3,187,270,956
6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2,054,914,183
7	841112	추진력이 25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8,850,506,050
8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8,499,495,450
9	841191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7,826,935,390
10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2,500시시 이하인 것	7,478,549,466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9,145,309,610
2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16,935,418,263
3	300490	기타	15,773,829,378
4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인 것	15,749,147,101
5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5,708,590,390
6	880330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	14,999,534,708
7	841112	추진력이 25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10,750,231,478
8	841191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8,860,625,446
9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7,375,663,216
10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2,500시시 이하인 것	7,041,046,058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31,877,500,865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29,990,131,018
3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7,631,941,805
4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18,072,706,224
5	880330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	15,509,293,112
6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14,917,084,682
7	300490	기타	14,491,693,527
8	841112	추진력이 25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13,813,738,696
9	841191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9,785,733,645
10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7,800,753,918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3,679,756,909
2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23,319,622,143
3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7,879,638,893
4	880330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	14,939,083,058
5	841112	추진력이 25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14,597,595,343
6	300490	기타	13,950,757,119
7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11,538,626,069
8	841191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10,902,135,201
9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9,174,716,967
10	970110	회화 · 데생 · 파스텔	8,702,471,300

<자료원 : UN Comtrade>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최근 5년)

2015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2,500시시 이하인 것	22,059,657,873

2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18,604,409,615
3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8,423,037,427
4	300490	기타	17,923,073,515
5	271019	기타	15,467,991,581
6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0,089,745,960
7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9,078,329,424
8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하고 1,500시시 이하인 것	9,001,465,067
9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8,669,723,377
10	841191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7,563,986,715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57,837,056,733
2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2,500시시 이하인 것	19,526,095,819
3	300490	기타	16,209,330,650
4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4,305,638,459
5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12,481,434,094
6	271019	기타	11,801,924,755
7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0,741,761,471
8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9,578,467,595
9	841191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8,794,695,501
10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하고 1,500시시 이하인 것	8,778,708,477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34,336,508,645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0,710,665,462

3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2,500시시 이하인 것	16,974,505,075
4	300490	기타	14,732,323,923
5	271019	기타	13,671,513,254
6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3,496,711,156
7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0,452,786,904
8	841191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10,321,962,649
9	271121	천연가스	9,575,284,984
10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8,996,263,167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40,250,985,813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6,343,685,991
3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25,526,500,425
4	271019	기타	19,864,685,087
5	300490	기타	13,633,250,409
6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13,238,518,248
7	271121	천연가스	13,219,658,608
8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1,158,734,691
9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10,888,557,449
10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9,752,011,433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70,715,585,915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4,594,161,445
3	271019	기타	16,495,865,721
4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2,974,895,645

5	300490	기타	11,806,010,736
6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10,757,099,634
7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0,618,044,621
8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10,313,286,425
9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9,966,169,762
10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9,553,671,435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6	6,288	5,212	1,076
2017	8,122	6,319	1,803
2018	6,359	6,809	-450
2019	5,515	4,169	1,346
2020	1,884	1,658	226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19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1	승용차	1,276	799	476
2	7414	전기자동차	89	0	88
3	7472	항공기부품	362	58	304
4	1333	제트유및등유	539	0	539
5	8121	무선전화기	93	1	92
6	8352	축전지	146	2	144
7	1113	백금	44	40	3
8	7420	자동차부품	222	55	167
9	6134	아연도강판	120	0	120
10	7251	건설중장비	141	10	130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0년 (5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	-------------	-----	------	------	------

1	7411	승용차	335	253	82
2	7414	전기자동차	251	0	251
3	7472	항공기부품	146	23	123
4	1333	제트유및등유	100	0	100
5	8121	무선전화기	94	0	94
6	8352	축전지	78	2	76
7	1113	백금	72	43	29
8	7420	자동차부품	61	20	41
9	6134	아연도강판	57	0	57
10	7251	건설중장비	52	1	51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19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1	승용차	1,276	799	476
2	2262	의약품	20	337	-318
3	1360	우라늄	0	0	0
4	1310	원유	0	211	-212
5	7111	원동기	17	158	-141
6	8151	계측기	8	140	-132
7	1113	백금	44	40	3
8	2261	농약	2	59	-58
9	8412	변압기	20	6	13
10	0157	주류	1	148	-147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0년 (5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1	승용차	335	253	82
2	2262	의약품	7	150	-143
3	1360	우라늄	0	102	-102
4	1310	원유	0	58	-58

5	7111	원동기	5	49	-44
6	8151	계측기	3	48	-45
7	1113	백금	72	43	29
8	2261	농약	3	40	-37
9	8412	변압기	14	40	-26
10	0157	주류	0	36	-36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EU) OCTs FTA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령의 25개 해외영토	1970-09-29	1971-01-01	
(EU) 유럽자유무역연합	스위스	1972-07-22	1973-01-01	
(EU) 유럽자유무역연합	아이슬란드	1972-12-19	1973-04-01	
(EU) 유럽자유무역연합	노르웨이	1973-05-14	1973-07-01	
(EU) 시리아 CA	시리아	1977-01-18	1977-07-01	
(EU) 안도라 CU	안도라	1991-06-28	1991-07-01	
(EU) 산마리노 CU	산마리노	1991-12-16	2002-04-01	
(EU) 유럽경제지역(EEA)	EFTA 3개국(스위스 제외))+EU28개국	1992-05-02	1994-01-01	
(EU) 터키 CU	터키	1995-03-06	1996-01-01	
(EU) 이스라엘 AA	이스라엘	1995-11-20	2000-06-01	
(EU) 페로 제도 FTA	페로 제도	1996-12-06	1997-01-01	
(EU) (EU)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AA	팔레스타인	1997-02-24	1997-07-01	
(EU) 튀니지 AA	튀니지	1995-11-11	1998-03-01	포괄적 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DCFTA) 협상 추진중 (2015.10. 협상개시, 직전협상 2019. 5.)
(EU) 남아프리카공화국 TDCA	남아프리카공화국	1999-10-11	2000-01-01	
(EU) 모로코 AA	모로코	1996-02-26	2000-03-01	
(EU) 멕시코 FTA	멕시코	1997-12-08	2000-07-01	무역협정 현대화 추진중(2016. 5. 협정 현대화 협상개시, 2018. 4. 협상 원칙적 합의, 2020. 4.28. 협상 타결, 법률검토 작업 후 비준 추진 예정).
(EU) 마케도니아(FYROM) SAA	마케도니아	2001-04-09	2001-06-01	상품 발효 기준, 서비스 발효: 2004. 4. 1.
(EU) 요르단 AA	요르단	1997-11-24	2002-05-01	

(EU) 칠레 FTA	칠레	2002-11-18	2003-02-01	협정 현대화 추진중(2017.11. 협정 현대화 협상개시, 직전협상 2020. 5.)
(EU) 레바논 AA	레바논	2002-06-17	2003-03-01	
(EU) 이집트 AA	이집트	2001-06-25	2004-06-01	
(EU) 알제리 AA	알제리	2002-04-22	2005-09-01	
(EU) 알바니아 SAA	알바니아	2006-06-12	2006-12-01	상품 발효 기준, 서비스 발효: 2009. 4. 1.
(EU) 몬테네그로 SAA	몬테네그로	2008-01-01	2010-05-01	상품 발효 기준, 서비스 발효: 2010. 5. 1.
(EU)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SAA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008-06-16	2008-07-01	
(EU) 세르비아 SAA	세르비아	2008-04-29	2010-02-01	상품 발효 기준, 서비스 발효: 2013. 9. 1.
(EU) 페루콜롬비아 AA	페루, 콜롬비아	2012-06-26	2013-03-01	
(EU) 중미 AA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2012-06-29	2013-08-01	
(EU) 코소보 SSA	코소보	2015-10-27	2016-04-01	
(EU) 한-EU FTA	한국	2010-10-06	2011-07-01	
(EU) 조지아 AA	조지아	2014-06-27	2014-09-01	
(EU) 몰도바 AA	몰도바	2014-06-27	2014-09-01	
(EU) 우크라이나 FTA	우크라이나	2014-06-27	2014-04-23	
(EU) 에콰도르 AA	에콰도르	2016-11-11	2017-01-01	
(EU) 캐나다 CETA	캐나다	2016-10-30	2017-09-21	
(EU) 남아프리카 5개국 EPA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란드	2016-06-10	2018-02-04	
(EU) 일본 EPA	일본	2018-07-17	2019-02-01	
(EU) 베트남 FTA	베트남	2018-10-19	2020-08-01	2020. 2. EU 비준 및 2020. 6. 8. 베트남 비준완료
(영국) 칠레 AA	칠레	2019-01-30	2021-01-01	영국 의회 비준 후 발효 예정
(영국) 동남아프리카 (ESA) EPA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짐바브웨	2019-01-31	2021-01-01	영국 의회 비준 후 발효 예정
(영국) 페로 제도 FTA	페로 제도	2019-01-31	2021-01-01	영국 의회 비준 후 발효 예정

(영국) 리히텐슈타인 TA	리히텐슈타인	2019-02-11	2021-01-01	영국 의회 비준 후 발효 예정
(영국) 스위스 TA	스위스	2019-02-11	2021-01-01	영국 의회 비준 후 발효 예정
(영국) 이스라엘 TPA	이스라엘	2019-02-18	2021-01-01	영국 의회 비준 후 발효 예정
(영국)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TPA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2019-02-18	2021-01-01	영국 의회 비준 후 발효 예정
(영국) 피지, 파푸아뉴기니 IEP	피지, 파푸아뉴기니	2019-03-14	2021-01-01	영국 의회 비준 후 발효 예정
(영국) 카리브 연안 국가 EPA	안티쿠아바부다, 바베이도스, 벨리즈, 바하마 연방, 도미니카 공화국, 그레나다, 가이아나, 자메이카, 세인트크리스토퍼네이스,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트리니다드토바	2019-03-22	2021-01-01	영국 의회 비준 후 발효 예정
(영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상품무역협정)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2019-04-02	2021-01-01	영국 의회 비준 후 발효 예정
(영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Andean countries) TA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2019-05-15	2021-01-01	영국 의회 비준 후 발효 예정
(영국) 중앙아메리카 AA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2019-07-18	2021-01-01	영국 의회 비준 후 발효 예정
(영국) 한국 FTA	한국	2019-08-22	2021-01-01	영국 의회 비준 후 발효 예정
(영국) 레바논 AEA	레바논	2019-09-19	2021-01-01	영국 의회 비준 후 발효 예정
(영국) 튀니지 AA	튀니지	2019-10-04	2021-01-01	영국 의회 비준 후 발효 예정
(영국)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나미비아, 남아공, 모잠비크 (SACUM) EPA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나미비아, 남아공, 모잠비크	2019-10-09	2021-01-01	영국 의회 비준 후 발효 예정
(영국) 조지아 SPA	조지아	2019-10-21	2021-01-01	영국 의회 비준 후 발효 예정
(영국) 모로코 AEA	모로코	2019-10-26	2021-01-01	영국 의회 비준 후 발효 예정
(영국) 코소보 PTCA	코소보	2019-11-03	2021-01-01	영국 의회 비준 후 발효 예정
(영국) 요르단 AA	요르단	2019-11-05	2021-01-01	영국 의회 비준 후 발효 예정

<자료원 : EU 위원회, 영국 정부 웹사이트>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EU) 인도 FTA	인도	2013. 5. 제14차 협상	
(EU) 안데스공동체(CAN) AA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	2008.11. 협상 잠정 중단	

(EU) 말레이시아 FTA	말레이시아	2012. 9. 워킹그룹 회의	
(EU) 리비아 FTA	리비아	2011. 2. 협상 잠정 중단	
(EU) 태국 FTA	태국	2014. 5. 협상 잠정 중단	
(EU) 미국 TTIP	미국	2016. 2. 제12차 협상	
(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FTA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2009. 3. 협상 잠정 중단	
(EU) 남미공동시장(MERCOSUR) FTA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2015. 6. FTA 조속 추진을 위한 공동성명 발표	
(EU) 걸프협력이사회(GCC) FTA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아랍에미리트	2008.12. 협상 잠정 중단	
(EU) 베트남 FTA	베트남	2019. 6. 협정 서명	
(EU) 싱가포르 FTA	싱가포르	2018.10. 협정 서명	
(EU) 뉴질랜드 FTA	뉴질랜드	2019. 5. 제4차 협상	
(EU) 영국 FTA	영국	협상중	2020.12.31까지 협상완료 목표
(EU) 인도네시아 FTA	인도네시아	협상중	
(EU) 호주 FTA	호주	협상중	
(EU) 뉴질랜드 FTA	뉴질랜드	협상중	
(EU) 아제르바이잔 Update of PCA	아제르바이잔	협상중	
(EU) 중국	중국	협상중	
(영국) EU	EU	협상중	2020.12.31까지 협상완료 목표
(영국) 미국	미국	협상중	
(영국) 일본 FTA	일본	CEPA 원칙적 타결	2020.9.11
(영국) 호주 FTA	호주	협상중	
(영국) 뉴질랜드 FTA	뉴질랜드	협상중	

(영국)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	호주, 캐나다,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페루	협상중	
----------------------------------	--	-----	--

<자료원 : EU 집행위원회>

4.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없음.

수입금지품목

- 영국은 EU 단일시장과 EU 집행위원회(EC)의 EU 상업 정책을 따르기 때문에 수입 규제 또한 유럽법을 따르고 있으며 EU 내 수입금지 및 규제 품목들은 EU 관보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
- EU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동물 실험 화장품, 물개 제품, 불법 벌채 목제품 등이 있다. 이 외에도 EU는 현재 홍합과 조갯살 등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수입이 가능하고 수입업체는 통관 시 위생증명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규제품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trade-tariff-import-prohibitions-and-restrictions/uk-trade-tariff-import-prohibitions-and-restrictions>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1) 인증

(1) CE 마크

- EU 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통합 인증마크로 생산 과정이 EU의 요구기준에 맞춰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 CE 마크는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인증으로 완구류, 저전압 기기, 의료기기, 선박 용품, 승강기, 기계류, 통신단말기, 건축자재, 개인보호장비 등 매우 광범위한 공산품에 적용되고 있다.
- CE 마크 부착
 - CE 마크는 제조업자 혹은 대리인이 부착해야 한다.
 - CE 마크는 확대 및 축소 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 CE 마크는 읽기가 쉬워야 하고 견고하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돼야 한다. 제품 특성상 불가능할 때는 제품의 포장 및 사용설명서에 부착할 수 있다.
 - 만약, 필요에 의해 통지 기관이 검사를 할 경우, 통지 기관 인식번호 역시 CE 마크에 추가로 표시돼야 한다. 이 인식번호 표시에 관한 책임은 제조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있다.

(2) RoHS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으로 전기·전자제품 내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한다.
- RoHS 지침 2011/65/EU 지침에 따라, 아래의 물질에 대해 규제치 이상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 납: 0.1%
 - 수은: 0.1%
 - 육가크롬: 0.1%
 - 폴리브롬화바이페닐: 0.1%

-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0.1%
- 카드뮴: 0.01%
- 프탈레이트 4종(DEHP, BBP, DBP, DIBP): 0.1% - 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3) REACH

○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화학물질 관리제도이며, EU 내 연간 1톤 이상(3년 동안의 평균값) 제조 혹은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 (1)화학물질, (2) 혼합물(Preparation)에 있는 화학물질, (3) 완제품(Article)에서 의도적 (Intended)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Unintended release)되는 화학 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 등록 대상

- 연간 1톤 이상 EU에서 생산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substance)
- 2개 이상 화학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의 경우, 각각의 화학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 의도적으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제품의 경우(화학물질이 배출됨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연간 1톤 이상인 각각의 화학물질
- 고분자는 단량체가 고분자 내 2% 이상 포함되어 있고 총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또는 고분자를 함유한 조제 제품 내 각 성분 총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 연 1톤 미만 제조/수입자, 대리인, 하위사용자, 물질정보를 보유한 제3자도 물질정보교환포럼(SIEF : substance information exchange forum) 참여를 위해 사전등록 가능

○ 신고대상

- 완제품에서 고 위험성 물질이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이상 및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 완제품에서 고 위험성 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이 비의도적인 배출(Unintended release)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이상이고 그 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 제품 및 공정중심 연구개발을 위한 물질도 화학물질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5년간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 물질 등록 절차

- 신청 및 제출: 화학물질 D/B 시스템 IUCLID(The International Uniform Chemical Information Database)내 물질 등록 및 관련 서류 제출

* 등록사항: 물질정보(화학물질 번호, 물질명 등), 기업명 및 담당자, 수입량, 물리학적 특성, 독성정보 등과 함께 기술서류(Technical Dossier), 화학물질 안전보고서(Cheical Safety Report)도 제출

* IUCLID 해당 홈페이지 : <http://iuclid.eu>

- 평가: 서류검증 및 질적 검사

* 물질 등록 서류 제출 후, 서류검증 시스템을 통해 자동검증이 시행되나 이는 모든 요구사항이 등재되었는지의 파악을 위한 단순체크에 불과하다. 유럽물질화학청(ECHA : The European Chemicals Agency)은 등록된 물질정보를 토대로 회원국들과 협의해 물질별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질적 검사를 통해 등록신청 물질의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 질적 평가에서 거부당하는 경우 1회에 걸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나, 2번 이상 거부되는 경우에는 사전등록 절차부터 다시 시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ECHA 지원센터 연락처 : +358-9-686180(헬싱키)

- 등록비용 지불 및 승인번호 부여 : 승인 결정 후 등록비를 지불하면 해당 물질의 등록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물질 등록일은 해당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날자로 지정된다.

- 등록물질 공표 : ECHA는 등록 완료된 물질을 유럽화학물질청 공식 웹사이트(www.echa.europa.eu)에 공표한다.

(4) CPNP(화장품 인증)

○ 화장품 EU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지정 및 유럽 화장품 인증이라 불리는 CPNP(The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 2013년 7월 11일부로 시행 중인 화장품 제품 관련 규제는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EU Cosmetic Regulation) No.1223/2009 내에서 규제되고 있다. (규정적용은 2013년 7월 11일부터)

(5) e-MarkEU

○ 자동차 분야 승인제도로써 유럽연합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EU 회원국으로부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검사 제도

이다.

- e-Mark는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는(Declaration of Conformity) CE Marking과 달리, EU 각국의 교통관리부 등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후 EU 인증기관인 교통관리부로부터 반드시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 시험 소요기간은 완성차는 1~2개월이 일반적으로 소요되며, 부품류는 대부분 2개월 이내에 가능하다(EMC는 시험에 1~2일이 소요되고 강화유리는 10일 정도 소요된다.).

- 시험이 완료된 후 일반적으로 2주 이내에는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 E-Mark 옆에 붙는 숫자는 EU-28개국별로 달라지며 국가마다 별도의 코드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별 코드는 아래와 같다.

1: 독일, 2: 프랑스, 3: 이탈리아, 4: 네덜란드, 5: 스웨덴, 6: 벨기에, 7: 헝가리, 8: 체코, 9: 스페인, 11: 영국, 12: 오스트리아, 13: 룩셈부르크, 17: 핀란드, 18: 덴마크, 19: 루마니아, 20: 폴란드, 21: 포르투갈, 23: 그리스, 24: 아일랜드, 26: 슬로베니아, 27: 슬로바키아, 29: 에스토니아, 32: 라트비아, 24: 불가리아, 36: 리투아니아, 49: 사이프러스, 50: 몰타

2) 보조금

- 인증제도 이외에도 EU는 반덤핑 및 반보조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2020년 6월 7일, EU 집행위는 정부보조금을 받은 역외국 기업의 역내시장 경쟁왜곡을 차단하는 규제 백서(White Paper on Foreign Subsidies in the Single Market)를 발표했다. 역외국 기업들이 보조금 수혜를 통한 풍부한 자금력을 이용해 EU 시장에서 역내 기업들과 상품 및 서비스 판매, 기업인수, 공공조달 분야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행 제도로는 이들 기업의 규제가 힘들어 보다 강화된 규제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집행위는 이번 백서에서 아래와 같은 3가지 규제수단을 도입하며 해당 이해관계자 의견을 올해 9월 23일까지 수렴한 후 2021년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일반(사후규제) : 특정 기업인수 건에 대해 인수자금 및 보조금 내역 사전신고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시정방안제출 조건부 승인 혹은 기업 인수 금지 조치

- 기업인수(사전규제) : EU 내 영업 중인 기업이 과거 3년간 20만 유로 이상의 보조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 저가판매 등 경쟁왜곡 여부를 심사하여 자산매각?투자금지 등 금전적 제재 부과

- 공공조달 및 EU 펀딩(사전규제) : 특정 공공조달이나 기금마련(펀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입찰기업에 보조금 수령 관련 정보제출 요구. 부당한 혜택이 확인될 경우 최대 3년 입찰이 불가하며 펀딩 프로젝트 참여 역시 배제

- 이번 발표된 제도가 내년 법제화되는 경우, 향후 보조금 관련 EU 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는바 우리 기업들의 예의주시가 특히 요구된다.

3) 기타 인증제도

(1) 에코 라벨

-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인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부착이 의무는 아니다. 에코 라벨은 1993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2019년 7월 현재 25개 품목군에 관한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 에코 라벨 대상 품목

- 개인 용품(흡수력 있는 위생용품, 세정 용품), 세제(경질 표면 세제, 산업용 식기세척기용 세제, 다목적용 세제, 식기세척기용 세제, 식기 세제, 세탁세제, 산업용 세탁세제), 의류(섬유제품, 신발), Do-It-Yourself(페인트 및 바니쉬), 전자제품(TV, PC 및 노트북), 바닥덮개(경외장재, 목재마루), 가구(가구, 매트리스), 정원용품(생육배지 및 토질향상제), 운할유, 종이제품(재활용용지, 인쇄용지, 신문용지, 화장지), 관광 숙소

(2) KITE 마크 제도

-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안전성 관련 인증제도로, 영국 기준원(British Standard Institution)에 의해 고안, 발급되고 있으며,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안전성, 내구성 등이 중요시되는 자동차, 기차, 창문, 소화기, 맨홀 등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된다. 영국인의

88%가 이 제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기업의 93%가 KITE 마크를 최고의 안전성 관련 인증으로 간주하고 있다.

○ 대상 품목

- 아동 안전 SW, 건설 장비 및 자재, 전기, 에너지, 음식보존 장비, 의료기기, 개인보호장비, 교통, 창문 등

○ 취득 절차

- <https://www.bsigroup.com/en-GB/kitemark/>에서 제품을 선택하여 온라인 신청하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을 거쳐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KITE 마크 로고를 제품과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또한, KITE 마크 공식 사이트에 인증회사로 등재된다.

TBT

기술장벽은 현재 EU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으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국가 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 등에 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유럽 내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하고 있으며 관련 규제를 지속 심화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EU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다.

1) 장난감 내 화학성분 기준 강화

EU는 어린아이의 신체와 직접 닿는 장난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년간 거의 개정 없이 유지되던 EU 장난감 안전규제는 2009년 신안전지침(2009/48/EC)이 공표된 후로 지속 심화하고 있다. 특히 장난감 내 함유되는 화학성분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데(2020년 7월까지 총 14건이 개정), 가장 최근 변경된 화학물질은 2019년 11월 알루미늄(Aluminium) 및 페놀(Phenol)에 관한 내용이다.

○ 장난감 안전지침 역대 개정 내역

- 2012년 3월, Cadmium 허용치(migration limits) 조정
- 2013년 7월, Barium 허용치 조정
- 2014년 6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TCEP, TCPP, TDCP, BPA 함량 제한
- 2014년 6월, Nickel 허용 품목 조정
- 2015년 11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Formamide, BIT 및 CMI, MI 함량 제한
- 2017년 3월 Lead 허용치 조정
- 2017년 5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Monomer, Phenol 및 BPA 함량 제한
- 2018년 5월, Chromium VI 함량제한
- 2019년 11월, Aluminium 허용치 조정
- 2019년 11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Monomer, Phenol 함량 제한 등

2)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사용제한 강화

○ 2018년 2월 14일, EU 집행위는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함유량을 제한한다는 집행위 규정 No.2018/213을 채택했다. 비스페놀 A(이하 BPA)는 플라스틱 물질제조에 사용되는 합성화학물질로 캔 음료, 생수통, 밀폐용기, 영수증 용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이다. 최근 유럽 내 BPA 위해성이 집중 조명되고 있으며, 유럽식품안전청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은 2006년부터 식품 용기에 들어가는 비스페놀A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위해성에 대해 지속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물질사용을 지속 강화하고 있는데, 집행위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2011년부터 영·유아용 젖병 내 BPA 사용을 금지했으며,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는 일정 제한치(0.6mg/kg)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 유럽물질화학청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는 2017년 6월, BPA 물질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며 REACH 고 위험성 물질목록(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에 등재시켰다. 집행위는 내부적 분석을 통해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물질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존 최대 허용기준을 0.6mg/kg에서 0.05mg/kg로 낮추기로 했다. 이 밖에도 통조림 제품의 경우, 제품 내벽의 부식방지를 위해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데 여기에 BPA가 들어가므로, BPA 제한용량(0.05mg/kg)을 니스 및 코팅제로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니스 및 코팅제가 들어간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 대해서는 적합성 선언문(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선언문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명시되어야 하며, 회원국 당국의 요청 시 기업은 10일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조 및 적합성 선언 기업정보(기업명 및 주소)
- 적합성 선언 작성 시기
- 제조 시, EU 규정 No.1935/2004 내 3, 15, 17 조항의 준수 여부
-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 제품 정보(식품군 종류, 식품처리에 사용되는 온도, 기간 등) 및 제조품 정보

○ 이 밖에도, 집행위는 3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소량의 BPA 노출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병과 컵에 BPA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0.05mg/kg를 초과하는 제품과 BPA가 함유된 영·유아용 물병 및 컵의 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한편, 유럽의회는 관련 제조기업들이 향후 BPA 대체 물질로 비스페놀 S(BPS)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BPS 물질에 대한 위해성 역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CHA 산하 위험평가위원회(RAC;

Risk Assessment Committee) 역시 BPS는 BPA와 유사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제조기업의 BPS 사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이 같은 추세로 향후 EU 내 BPA 물질 금지분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사료되며 BPS 물질 제한 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돼 우리 기업의 예의주시가 요구된다.

3) 화장품 원료 규제 강화

○ 2020년 2월 27일부로 자외선차단제, 염색, 샴푸 등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의 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EU는 피부와 직접적으로 닿는 화장품 물질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페니페놀 물질의 최대허용 농도제한(11월) 및 일부 메리골드 물질 사용을 금지(7월)한 바 있다. 올해부터 제한이 강화된 물질은 아래와 같다.

- (사용금지 물질)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황산염 및 염산염(2-Chloro-p-Phenylenediamine, 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

○ 염색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물질의 경우, 지금까지 마스카라와 아이브로우 제품에서 최대 4.6%까지 허용되어 왔다. 유럽 과학위원회(SCCS; 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는 상기 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해당 물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고, 지속 사용 시 잠재적 위험성이 커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황산염 및 염산염(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의 경우,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과 기본적인 물질구조가 동일하므로 이들도 같이 금지해야 하며, 금지제품에 염색약도 추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집행위는 이 같은 과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마스카라, 아이브로우 및 헤어 염색약 내 해당물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 (허용량 제한) 클림바졸(Climbazole) : 비듬방지제에 주로 사용되는 크림바졸의 경우, 0.5% 내에서 사용이 허용되어 왔으나 과학위원회는 평가 후, 기존 농도로는 인체에 유해하므로 제품에 따라 아래와 같이 0.2~0.5% 이내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 로션, 크림, 발 전용 제품 : 최대 0.2%까지

- 샴푸: 0.5%까지만 안전(비듬샴푸의 경우에는 2%까지 허용)

○ 화장품 성분에 대해 새로운 제한기준이 마련되면 이미 제조된 제품의 EU 내 반입 자체가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생산 중이던 화장품들은 변경된 기준에 맞춰 재생산해야 하는 등 생산라인에도 큰 차질을 받게 된다. 최근 역내 K-뷰티 열풍에 힘입어 EU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러한 EU의 움직임에 보다 주시해 우리 수출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동안 영국은 EU의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영국은 EU의 공동 관세제도가 도입된 1968년부터 여타 EU 회원국과 동일한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EU의 주요 관세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의 무역협정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양자 간 특혜관세 조치를 하고 있으며, 일부 제품에 대하여 수입관세 감면 또는 면제 등 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관세는 EU가 매년 발표하는 관세율표에 의하여 각 회원국의 세관 당국이 징수한다.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관세분류 방식인 HS(Harmonized-System)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에는 수입 부담금과 공동 농업정책에 의한 농업 부담금(농산물에만 해당) 등이 포함된다.

또한, EU는 매년 상,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역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하여 EU의 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제품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EU 관보를 통하여 공표된다.

한편 영국은 브렉시트 협상 결과에 따라 EU 탈퇴 이후 독립적인 관세정책을 펼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영국 정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영국 독자적 관세 체계인 영국글로벌관세(UKGT)를 발표했으며 이는 EU의 공동 관세제도를 대체할 예정이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모든 제품의 수출입 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 분류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영국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제도(CN CODE)를 적용하지만,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한국 HS 코드(HSK)와 일치한다.

- 1단계는 취급하는 상품의 분류번호를 파악해야 한다. 상품 분류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입 제품의 영문 품목 설명을 보고 HS코드 상의 설명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해당하는 CN CODE를 선택하고 관세율을 확인하여야 한다.
- 2단계는 영국 정부기관 사이트인 <https://www.gov.uk/trade-tariff/sections> 에 접속후 상단에 위치한 Search Tariff 칸에 정확한 상품 분류번호를 기재한다.
- 3단계는 해당 번호로 검색되는 상품의 상세설명을 보고, 해당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목록에서 자신의 제품의 원산지를 비교한다. 자신의 국가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최상단의 제3국 기본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면 된다.
- 4단계는 코드별 상품품목을 확인한다. 참고로 기본 관세 외에 부가세 20%가 추가 적용되는 품목들이 대부분이며, 이는 별도로 표시된다.

(영국 글로벌 관세 - UKGT)

UKGT는 2021년 1월 1일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적용되며 8자리 상품코드, 제품 설명 등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 2020년 현재 검토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2021까지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부의 안내 웹페이지에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https://www.gov.uk/guidance/uk-tariffs-from-1-january-2021>)

(관세율 확인) <https://www.gov.uk/check-tariffs-1-january-2021>

5. 통관 및 운송

가.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 영국 내 상품 반입 시, 수입 신고 및 관세 납부를 통해 세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세관 신고는 통관 후 9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상품 도착 30일 이전에 미리 신고할 수 있지만 실제로 상품이 도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 절차가 공식적으로 완료된다. 세관 신고는 화물 운송업체, 세관 대리인/중개인, 특송업체 등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 제출 방법

- CHIEF 시스템에 세관 절차 코드, 상품 코드, Declaration unique consignment reference를 제공한다.
- 또한 DUOCR(Declaration Unique Consignment Reference), 출발지/목적지, 수탁자, 상품 종류, 수량, 운송방법, 비용, 인증서, 라이선스 등을 제공한다.

○ CHIEF가 지불 금액을 고지하면 상품이 출시되기 이전에 지불을 완료한다.

○ 약식 통관(Simplified Declarations)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를 수 있다.

- 상품에 대한 약식 통관 사용 제한 여부 확인
- CHIEF 시스템에 약식 신고서 제출
- 보충신고서(Supplementary Declaration) 제출
- 최종 보충 신고서 제출
* 약식 통관 전에 HMRC 승인, CHIEF 배지(badge), CHIEF 시스템 사용 소프트웨어, 관세 및 부가가치세(VAR) 납부 연기 계정 확인해야 함

○ 우편 배송의 경우, 국제 우편협약에 따라 반드시 관세신고서(CN22/CN23)를 작성하고 상자에 부착해야 한다. 모든 제품에 대해 관세(customs), 소비세(excise), 수입 VAT(import VAT)를 납부해야 한다.

- 상업용 위탁품: 15파운드까지 관세 및 수입 VAT 면제 (알코올, 담배, 향수 불포함)
- 선물용: 39 파운드가 넘는 경우 수입 VAT 적용, 135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적용

통관 시 유의사항

○ 식물을 영국 내에서 수입하기 위해서는 위생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PEACH(Procedure for Electronic Application for Certificates from the Horticultural) 마케팅 감독원에 수입업자로 등록하고 보건 당국에 사전 통지가 필요하다. (링크:

<http://ehmipeach.defra.gov.uk/Default.aspx?Module=Register>) 해당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심을 수 있는 모든 식물
- 뿌리, 덩이줄기채소
- 보존 과일, 일반 과일
- 꽃
- 보존 채소, 씨앗, 곡물, 잎이 많은 채소
- 감자(일부 국가)
- 농임업용 기계 및 차량
- * 파인애플, 코코넛, 두리안, 바나나, 데이츠는 위생 증명서 불필요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판토스 영국법인

주소	776 Buckingham Avenue, Slough, Berkshire, SL1 4NL, UK
전화번호	+44 1753 610 403
이메일	jongmin96.lee@pantos.com
홈페이지	http://www.pantos.com

○ 현대상선(주)

주소	4th Floor, City Reach, 5 Greenwich View Place, Millharbour, London E14 9NN, UK
전화번호	+44 207 477 6900
이메일	woojung.kim@hmm21.com
홈페이지	http://www.hmm21.com

○ 롯데글로벌로지스틱스 영국법인

주소	Unit5 Nexus Close, Off Central Way, North Feltham Trading Estate, Feltham, Middlesex TW14 0AF
전화번호	+44 208 577 5692
홈페이지	https://www.lotteglogis.com/english/company/global

○ SNL 로지스틱스

주소	15 Heatherlea grove Worcester park, Surrey, KT4 8GB
전화번호	+44 20 8337 6136
이메일	amgyang@naver.com
홈페이지	http://snluk.com/

○ 한진택배

주소	Unit 5 Devonshire Court, Victoria Road, Feltham TW13 7LU, UK
전화번호	+44 208 867 0001

이메일	admin@worldlinkexp.com
홈페이지	http://www.worldlinkexp.com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외국인 투자 및 해외 투자를 포함한 자본 유출입에 대한 수치 파악과 일반적인 경제 활동에 관한 통계 정보를 수집, 조사하는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무역 통계법(The Statistics of Trade Act, 1947)이 시행되고 있다.

- 무역 통계법 주요 내용
 - 통계청의 통계조사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
 - 생산, 유통, 서비스에 대한 센서스
 - 조사에 대한 회신 방법, 회신 기간
 - 회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 추가적인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 조사 결과의 의회 보고 관련 사항
 - 자문위원회
 - 정보의 공개
 - 정보 조사에 따른 강제 사항 등
 - 기타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투자인센티브

1) 지역 성장 기금(RGF; Regional Growth Fund)

- 스코틀랜드 지역 정부 보조 기금
 - 스코틀랜드는 스코틀랜드 국제개발청(Scotl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SDI)을 통해 스코틀랜드에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기존 사업체를 확장,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해 정부 차원의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럽 공동체 법에 따라 지역 정부 지원 대상 지역의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주된 형태는 무상 현금 보조로 자본 투자 비용, 고용 창출 규모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며 SDI에 직접 접촉해 상담을 통해 적합한 지원프로그램 정보를 받게 된다.

홈페이지: <http://www.sdi.co.uk/invest/investment-services/financial-assistance>

- 세계상의 인센티브
 - 영국은 철저한 내외국 기업 평등주의에 입각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가만을 위한 특별한 세제 혜택은 없다.

- 특별 법인세율 적용
 - 비즈니스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특별 법인세 하락률을 적용, 2013년 23%에서 2014년 21%로, 2015년 4월 1일 자로 20%까지 낮춰 단일세율로 개편했다. 이후 2017년 4월부터 19%로 인하되어 2020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2) 연구 및 개발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 연구개발 경비 세금 면제
 - 연구개발(R&D) 관련 선정된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한 수입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중소기업에 한해 130%에 해당하는 금

액이 수입에 대해 세금감면을 적용받는다. 개발 촉진 지구에 투자하는 경우 공장 건설을 위한 자본비용 및 연구 개발비의 100%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준다. 또한, 회사가 손실을 보고 있다면 손실의 최대 14.5%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 특허 관련 세금감면 혜택(Patent Box)

- Patent Box는 영국 기업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발명특허를 취득했거나 취득을 위해 심사과정에 있는 제품 및 서비스 취급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윤에 대해 10% 법인세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https://www.gov.uk/guidance/corporation-tax-the-patent-box#history>

- UK Foresight

- 영국 내의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12개월 연구기간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2020년 현재 이동수단의 미래(Future of mobility)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 대상: 선정된 연구 주제에 따라 적합한 선정을 통해 보조

-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foresight-projects>

제한 및 금지(업종)

영국은 현재 다른 국가의 자국 기업 인수로 인해 시장 점유율이 25% 이상이 되거나 인수 규모가 7천만 파운드(한화 약 1천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정부가 개입할 수 있으며, 군사용 기술이나 양자 기술 및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을 가진 기업은 100만 파운드(약 15억 원) 규모의 투자에도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2018년 7월 24일 그렉 클라크 영국 기업부 장관은 앞으로 시장점유율이나 인수 규모와 관계 없이 중요 기술이나 지적재산권을 지닌 자국 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를 정부 승인을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예정이라고 밝혀 향후 주요 기술에 대한 다른 국가의 접근이 더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지방자치 단체는 주택법(Housing Act, 1989)에 의거 해당 지역의 경제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권한을 위임받고 있어 인센티브의 내용이 자치 단체별로 다소 다르다. 주로 Grants(보조금), 저리의 자금 대출, 지급 보증, 투자 기업에 자본 참여, 건물 등의 부동산을 무료 또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 잉글랜드 지역 투자 인센티브

- 잉글랜드 지역은 Great London, South East, South West, East of England, East Midlands, West Midlands, North West, Yorkshire and the Humber, North East의 9개 지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현재 총 45개 정부 지정 기업지구(Enterprise Zone)를 운영하고 있다. 이 단지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신규 및 증액 투자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세금감면은 5년간 최고 27만 5,000파운드까지 지원되며, 신규 시설건립 시 계획에서 완공에 이르는 과정을 저가로 쉽고 빠르게 완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 주요 정부 투자 지원보조금으로는 Selective Finance for Investment in England(SFIE)가 있으며, 그 밖의 투자 관련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Access to Finance advice - North West England가 있다.

- SFIE (Selective Finance for Investment in England)

잉글랜드의 웨스트 미들랜드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선택적 투자 지원 보조금 제도로 기존의 유사 제도를 통합해 2004년 4월 1일부로 시행됐으나 수행기관 Advantage West Midlands 를 포함 9개의 지역개발청이 2010년 폐소됨에 따라 현재는 BIS에서 이미 인준된 SFIE의 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SEIS(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사업을 개시한 지 2년 미만이고, 자산가치가 20만 파운드 이하인 회사를 대상으로, 최대 15만 파운드의 투자금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영국 회사의 지분을 매입한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금에 대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는 상대적으로 높은 리스크를 가진 아직 이른 단계의 소규모 회사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고안되었다.

2) 웨일스 지역 투자 인센티브

○ 지원 프로그램 및 대상

- 웨일스 지방 정부는 비즈니스 혁신 지원 패키지 Business Innovation Support Package 프로그램을 통해 웨일스 지역에서 수행될 신규 고 기술혁신 제품 생산 및 개발 관련 R&D 사업 및 생산시설설립 지원, 잠재 R&D 파트너 상담 여행비 지원, 웨일스 내 대학과의 협력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제공한다.

○ 정부보조금 지원

- 웨일스 지방정부의 비즈니스 혁신 지원 전문가를 통해 SMARTCymru R&D funding, 영국, 유럽 보조금 지원신청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SMARTCymru의 경우 R&D funding은 R&D 프로젝트 수행 전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나 지원 가능하며 지원 가능 분야는 기술개발, 산업연구, 실험개발 등을 포함하며 액수 및 기간 등은 웨일스 정부 홈페이지

<https://businesswales.gov.wales/expertisewales/support-and-funding-businesses/smartcymru>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3) 스코틀랜드 지역 투자 인센티브

○ 관할 기관 : Scottish Development International(<https://www.sdi.co.uk/>)

○ 주요 인센티브 현황

- RSA(Regional Selective Assistance) Grant : 스코틀랜드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이거나, 프로젝트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은 사업규모나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10만~25만 파운드 사이이다. 자본 지출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프로젝트는 '최초 투자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자본 지출이 수반되지만, 신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사업은 '일자리 창출 대책'을 통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 SMART : R&D 혁신 프로젝트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비의 35%~50% 지급할 수 있다. 참고로 대기업에 속하는 경우는 25%~40%보조 가능하다. 적격 R&D를 수행하는 컨소시엄(2개사~6개사 협의체)도 지원 가능하다.

- 스코틀랜드 투자은행 지원 : 중소기업에 대출 등의 자금조달과 공동투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4) 북아일랜드 지역 투자 인센티브

○ 관할 기관 : Invest Northern Ireland (www.investni.com)

○ 주요 인센티브 현황

- 혁신사업 및 R&D 사업 지원금 : Innovation Vouchers 시스템을 통해 북아일랜드 및 아일랜드 소재 대학, 연구기관들로부터 필요한 전문지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대 5천 파운드를 지원한다.

* 자세한 내용 링크 : <https://www.investni.com/support-for-business/innovation-vouchers.html>

- 고속 성장분야 창업 보조금(Funding for high-growth start-ups) : 고기술 소재 산업, 유기과학 관련 산업, 의료 관련 산업, 디자인 엔지니어링 및 광학 산업, 에너지 산업, ICT 산업 등 기타 첨단 산업분야 중 아일랜드 외 지역에서 지난 3년간 성취한 높은 매출을 증명할 수 있고 아일랜드의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경우 창업 컨설팅 지원 및 보조금이 가능하다. 사업내용 검토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되며, 최대 2만 파운드까지 지원된다.

* 자세한 내용 링크 : <https://www.investni.com/support-for-business/support-for-high-growth-start-ups.html>

- 금융 지원 : 운영 자금을 비롯해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자본에 대해 IDB 측이 정부 자금을 융자해 준다. 해당 자금은 무이자기간이 포함되었으며 담보제공 등 채권보전조치가 필요하다. 특수한 프로젝트인 경우 Invest NI가 직접 주식 투자의 형태로 참여한다.

산업단지

○ Brackmills Industrial Estate

규모	274,396 sq ft
위치	Northampton NN4 7TW
임차료	-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 연락처 및 홈페이지 - 이메일: sara.homer@brackmillsestate.co.uk - 홈페이지: https://www.brackmillsindustrialestate.co.uk

○ Island Road Industrial Estate

규모	256,000 sq ft
위치	Island Road, Reading Berkshire, RG2 0RP
임차료	-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이전시 렌트 문의 - 전화: 078 1052 7703 - 이메일: john.barker@gva.co.uk

○ Gravelly Industrial Park

규모	1,100,000 sq ft
위치	Birmingham B24 8TB
임차료	-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이전시 렌트 문의 - 전화: 012 1265 7500 - 이메일: peter.monks@colliers.com

<자료원 : KOTRA 런던 무역관 >

주요 지역별 여건

○ 사우스요크셔(South Yorkshire)

- 면적: 1,552km²
- 인구: 140.3만 명 (영국통계청 발표 최신자료)
- 주도: 셰필드(Sheffield)
- 주요 기관: Sheffield City Council
- 주요 산업: 창조 및 디지털 첨단산업

○ 웨스트미들랜즈(West Midlands)

- 면적: 902km²
- 인구: 590.8만 명 (유로스타트 발표 최신자료)
- 주도: 버밍엄(Birmingham)
- 주요 기관: Birmingham City Council
- 주요 산업: 영국 자동차 제조업체 재규어 랜드로버 공장, 영국 최대 제과업체 Cadbury, 엔지니어링 회사 IMI plc, Amey, Deutsche Bank, 영국 HSBC 본사 등 30,000개가 넘는 국내외 기업들이 소재

○ 그레이터 런던(Greater London)

- 면적: 1,572km²
- 인구: 890.8만 명 (영국통계청 발표 최신자료)
- 주도: 런던(London)
- 주요 기관: 각종 정부 부처
- 주요 산업: 문화, 서비스, 미디어, 정보통신 첨단산업으로 McKinsey(미국), Richemont(스위스), J.P. Morgan(미국), EY(영국), Amazon(미국), HSBC(영국) 등이 진출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5	2016	2017	2018	2019
39,185.7	258,698.7	101,240.7	65,299.59	59,137.15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5	2016	2017	2018	2019
-66,821.48	-37,605.82	117,547.43	41,424.63	31,479.99

<자료원 : UNCTAD Stat>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7	91	32	1,883,181	133	1,367,137
2018	169	49	1,957,545	216	2,586,965
2019	150	35	2,660,560	198	2,224,392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2017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광업	2	0	1,000	8	252
제조업	13	5	13,332	14	13,21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0	5	548,284	9	547,247
건설업	2	1	73,999	2	73,999
도매 및 소매업	12	4	7,553	16	8,127
운수 및 창고업	4	2	197,070	2	1,300
숙박 및 음식점업	2	0	10,974	2	10,965
정보통신업	5	3	7,122	5	6,869
금융 및 보험업	7	6	970,088	24	635,959
부동산업	1	1	7,323	6	19,55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	0	36,127	23	39,888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	3	6,035	6	5,646
교육 서비스업	1	1	106	2	10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	1	3,000	1	3,000
N/A	2	0	1,168	13	1,007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8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1	1	764	1	765
광업	2	0	1,000	13	333
제조업	27	6	35,663	24	18,057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0	3	57,129	12	37,577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7	2	438,712	7	438,712
건설업	2	1	126,050	2	126,050
도매 및 소매업	29	6	13,770	34	13,397
운수 및 창고업	3	1	143,285	5	118,623
숙박 및 음식점업	2	0	655	4	594
정보통신업	30	3	9,112	31	9,962
금융 및 보험업	17	12	1,002,653	29	1,625,269
부동산업	9	4	76,877	11	148,40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9	6	42,193	25	41,792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9	3	8,319	11	6,96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1	66	1	66
N/A	1	0	1,297	6	394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9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1	0	6,074	1	1,218
광업	2	0	1,000	12	391
제조업	17	4	146,786	20	155,83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7	1	368,914	9	368,922
건설업	5	0	29,616	0	0
도매 및 소매업	27	8	10,627	30	9,042
운수 및 창고업	1	1	40	1	43
숙박 및 음식점업	2	0	719	5	731
정보통신업	5	2	3,202	6	3,341
금융 및 보험업	30	11	1,919,210	31	1,503,937
부동산업	13	2	128,764	17	136,84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4	35,559	30	35,939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7	1	2,790	24	2,169
교육 서비스업	1	1	264	1	3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	0	5,249	2	5,24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	0	0	0	0
N/A	2	0	1,746	9	704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국민은행 런던 현지법인

진출연도	1991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금융보험
취급분야	은행

모기업명	KB금융그룹
------	--------

○ IBK 기업은행 런던지점

진출연도	1996
진출형태	지점
업종	금융보험
취급분야	은행
모기업명	중소기업은행

○ 대우조선해양 런던지사

진출연도	1996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선박
모기업명	대우그룹

○ 대한항공

진출연도	1974
진출형태	지점
업종	운송물류
취급분야	항공운송
모기업명	한진그룹

○ 삼성생명 런던법인

진출연도	2002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금융보험
취급분야	금융투자
모기업명	삼성그룹

○ 삼성전자(SDE)

진출연도	1984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기타
취급분야	디자인연구소
모기업명	삼성그룹

○ 삼성중공업

진출연도	1980
진출형태	지점
업종	건설공사
취급분야	조선해양설비
모기업명	삼성그룹

○ 삼성증권 유럽법인

진출연도	1995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금융보험
취급분야	주식중개
모기업명	삼성그룹

○ 삼성화재 해상보험 유럽법인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금융보험
취급분야	손해보험
모기업명	삼성그룹

○ 신한은행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지점
업종	금융보험

취급분야	금융서비스
모기업명	신한금융그룹

○ 아시아나항공 런던지점

진출연도	1999
진출형태	지점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항공예약서비스
모기업명	금호아시아나그룹

○ KEB 하나은행 런던지점

진출연도	1993
진출형태	지점
업종	금융, 보험
취급분야	무역투자
모기업명	하나금융그룹

○ 우리은행 런던지점

진출연도	1978
진출형태	지점
업종	금융, 보험
취급분야	금융서비스
모기업명	우리금융그룹

○ 코리안리재보험 런던주재사무소

진출연도	1972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금융, 보험
취급분야	보험
모기업명	-

○ 하이호금속 유럽법인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알루미늄
모기업명	-

○ 한국산업은행 런던지점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지점
업종	금융, 보험
취급분야	증권, 은행업무
모기업명	KDB금융그룹

○ 한국석유공사 영국사무소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광업, 자원개발
취급분야	석유개발
모기업명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수출입은행

진출연도	1978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금융, 보험
취급분야	금융
모기업명	기획재정부

○ 범한판토스

진출연도	2004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운송, 물류

취급분야	물류
모기업명	LG상사

○ LG전자 영국법인

진출연도	2004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 유통
취급분야	전기, 전자 도소매
모기업명	LG그룹

○ 금호타이어(주) 영국법인

진출연도	197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타이어
모기업명	금호아시아나그룹

○ 기아자동차 영국판매법인

진출연도	2002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 유통
취급분야	승용차
모기업명	현대자동차그룹

○ 오로라월드

진출연도	199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 유통
취급분야	인형
모기업명	-

○ 현대자동차 영국판매법인

진출연도	198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 유통
취급분야	자동차, 자동차부품 판매
모기업명	현대자동차그룹

○ 현대건설 런던지사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지점
업종	건설, 공사
취급분야	건설
모기업명	현대자동차그룹

○ 현대상선(주) 구주본부

진출연도	1996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운송, 물류
취급분야	해상운송
모기업명	현대중공업그룹

○ 현대중공업(주) 런던지사

진출연도	1992
진출형태	지점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조선, 전기전자
모기업명	현대중공업그룹

○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런던사무소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금융, 보험

취급분야	보험
모기업명	현대해상화재보험그룹

○ SK에너지 유럽

진출연도	2001
진출형태	지점
업종	기타
취급분야	Trading
모기업명	SK이노베이션그룹

○ 범양익스프레스(퓨멕스)

진출연도	2003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운송, 물류
취급분야	국제포워딩
모기업명	-

○ GS칼텍스(주) 런던사무소

진출연도	1995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석유, 석탄, 철광
모기업명	GS그룹

○ 휴맥스 영국 법인

진출연도	1997
진출형태	지점
업종	기타
취급분야	전자제품 판매/유통
모기업명	-

○ 한화테크윈 유럽법인

진출연도	2001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소매업
취급분야	통신/전자장비
모기업명	한화그룹

○ 경동 나비엔 영국법인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법인
업종	무역/유통
취급분야	보일러 기기
모기업명	-

○ 대한전선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법인
업종	무역/유통
취급분야	전선케이블
모기업명	-

○ 도루코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법인
업종	무역/유통
취급분야	생활용품
모기업명	-

○ 주)두산 산업차량

진출연도	2011
------	------

진출형태	법인
업종	무역/유통
취급분야	산업용 차량
모기업명	두산그룹

○ 삼성물산 러더법인

진출연도	1975
진출형태	법인
업종	무역/유통
취급분야	기타
모기업명	삼성그룹

○ 포스코 인터내셔널 런던지사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법인
업종	무역/유통
취급분야	철강
모기업명	포스코

○ 현대자동차 영국판매법인

진출연도	1987
진출형태	법인
업종	무역/유통
취급분야	자동차, 자동차부품 판매
모기업명	현대자동차그룹

○ 효성중공업 영국지점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지점
업종	무역/유통
취급분야	해외영업

모기업명	효성
------	----

○ LS 전선(주) 유권판매법인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법인
업종	무역/유통
취급분야	전선케이블

○ 무림페이퍼(주) 유권법인

진출연도	2004
진출형태	법인
업종	도소매,유통
취급분야	기타

○ 두산파워시스템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법인
업종	제조/발전
취급분야	발전사업
모기업명	두산중공업그룹

<자료원 : KOTRA 런던 무역관>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영국은 법인의 설립 절차 및 비용이 저렴하고 법인의 폐쇄 또한 쉽기에 외국기업들은 지사나 연락사무소보다 법인 설립을 많이 하나 영국에서 지속해서 영업하지 않고 하나의 특정 프로젝트만을 위해 진출할 때는 지사나 연락사무소 형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1) 투자 형태별 설립 절차

(1) 비공개 주식회사(Private limited company: LTD)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를 회사 등기소(the Registrar of Companies)에 제출하면 된다. 모든 소정 양식은 회사 등기소에서 구할 수 있으며, 서류 등록 비용은 20파운드이다(설립과 동일자에 등록할 경우 100파운드).

- 회사 설립 시(모든) 자본 출자자가 서명하고 공증된 회사 정관 사본(이때 자본 출자자는 한 명이라도 상관없음)
- 초대 이사 및 비서역에 관한 보고서: 이사 및 비서역의 취임 동의서(서식 10)와 회사의 등록된 사무소 주소 첨부
- 회사법 1985에서 규정한 제반 절차를 이행했다는 서약서(이 서약서는 공증인 입회하에 변호사, 이사 또는 비서역이 작성)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제반 요건이 충족된 경우 회사 등기소는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을 발급한다. 회사 설립 증명서의 발급은 사실상 회사의 영업 개시를 인가한 것을 의미하며, 그 이전에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회사 설립 후 신고 사항
 - 회계연도의 신고: 1996년 4월 1일 이후 설립 회사는 자동으로 회사 설립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이 되나, 요건 충족 시 현재의 회계 연도 변경도 가능하나, 이때는 서식 225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 신주 발행: 신주 발행 경우에만 해당
 - 상호 및 정관의 변경: 회사 상호의 변경은 인가받는데 통상 10일이 소요되나 100파운드의 수수료를 내면 하루 만에도 가능하다. 새로운 회사명은 '회사명 변경 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on change of name)'가 발급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설립 후 이사회회의 소집: 이사는 회사 설립 후 즉시 이사회회를 소집해 회사를 설립하는 데 따른 절차를 승인하고, 거래 은행 및 회계 감사인의 지정, 주주에 대한 주권 발행 등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 법인 설립 후의 보고 의무

- 회계 자료 보고: 결산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재무제표를 회사 등기소(registrar)에 제출해야 한다.
- 연차 보고서 보고: 매년 작성, 제출 의무가 있으며 작성일로부터 28일 이내에 회사 등기소(Companies House)에 제출해야 한다(제출 수수료 15파운드).
- 연차 주주총회 개최: 매년 1회 이상, 이전 주주총회로부터 15개월이 지나기 전에 개최해야 한다.

(2) 공개 주식회사(Public limited company: PLC)

비공개 주식회사는 주식을 공모할 수 없는 반면, PLC는 자금 조달 방법으로 주식 공모가 가능하다. PLC는 비공개 주식회사보다 엄격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비공개 주식회사로 설립할 것인지는 각각의 장단점을 회사의 상황에 비추어 결정해야 하는데, 비공개 주식회사로 설립한 후 PLC로 전환하는 것은 처음부터 PLC로 설립하는 것 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하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일부 기업들은 회사 이름 뒤에 붙는 PLC에 대한 신뢰성 때문에 주식 상장을 앞두고 PLC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PLC 설립 방법은 비공개 주식회사 설립과 유사하나 다음 사항에 차이가 있다.

- PLC 정관에 public limited company로 명기해야 한다.
- PLC의 회사명은 반드시 public limited company 또는 PLC로 끝나야 한다.

- PLC는 최저 2명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비공개 주식회사는 최저 1명의 이사).
- PLC의 수권 자본금은 5만 파운드 이상이어야 한다(비공개 주식회사는 1파운드 이상으로 사실상 수권 자본금 제한 없다.).
- PLC의 발행 주식 총액은 수권 자본 금액의 25% 이상이고, 주식이 액면가 이상으로 발행되는 경우는 프리미엄 금액 전액이 납부되어야 한다.
- PLC의 비서역(company secretary)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경험 및 적절한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 PLC가 최저 자본금에 관한 요건을 충족시키면 회사 법(Company Act) 117조가 규정한 설립 인가증이 회사 등기소(registrar)로부터 발급되며, 이 인가증 발급 이전에는 업무상 거래나 차입 행위가 금지된다.

(3) 공장 설립

일반적으로 공기, 물 또는 토지를 오염, 홍수, 토지 배수에 악영향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장의 경우 환경 허가(environmental permit)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요소의 종류에 따라 허가 신청이 다르게 이뤄지며 목록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gov.uk/guidance/check-if-you-need-an-environmental-permit#who-to-apply-to>

2) 참고사항

대부분의 영국진출 한국기업은 단독법인(LTD)으로 설립하고 있으며, 일부는 지사로 설립하되, 이 경우 모든 법적인 책임과 의무는 본사에 귀속된다.

지사

외국 회사가 영국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보조적 또는 임시적이 아닌 경우에는 지점 등록 규정(branch registration regime)에 따라 지점 등록을 한다. 지점은 외국 회사를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직되며, 이는 영국 거주자가 외국 회사 본사와 거래하는 대신 영국 지점과 직접 거래함을 의미한다.

1개 이상의 지점 설치도 가능하다. 지점을 설립한 외국 회사는 지점 개설 후 1개월 이내에 서식 BR1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해 해당 등록 사무소에 제출하며 등록 비용은 20파운드이다. 모든 서류는 공증된 영문 번역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최초 지사 개설 후 복수 개설되는 다른 지점은 최초의 지점 등록 번호를 서식 BR1에 기재하면 정관 등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회사 현황자료, 메모랜덤 및 회사 정관의 인증된 사본(만약 원본이 영어 이외의 것으로 돼 있으면 인증된 영문판 문서도 함께 준비)

-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 BR1 양식
 - 외국 회사 본점에 관한 사항
 - 회사 명칭
 - 사업장 명칭(회사 명칭과 다른 경우)
 - 회사의 설립 국가, 설립 국가에서의 법인 등록번호, 설립 국가의 등록 기관
 - 회사의 형태
 - 회사의 이사와 비서의 명단, 주소, 국적, 직업, 생년월일 등
 - 제3자와 거래 및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이사의 권한의 정도 신용 또는 금융기관 여부
- EU 회원국 이외에서 설립된 외국 회사는 추가로 아래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 회사의 설립 근거법
 - 설립 국가 내 주소, 회사의 목적, 자본금
 - 본사의 회계 기간 및 본사 소재국의 법에 따른 회계 보고서 작성 및 공시 기한 영국 지점에 관한 사항
 - 지점 주소
 - 개설 일자
 - 지점에서 수행하게 될 사업 내용
 - 회사의 명칭과 사업장 명칭이 다른 경우는 사업장 명칭을 기재

- 지점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영국 내 거주자의 성명 및 주소
- 권한의 행사 범위(즉, 위임 기관이 범위 내 또는 제한을 표시한 정도 내인지) 및 공동 대표면 관련된 자의 성명

○ 지점 등록 후 신고 사항

- 회계 자료 보고
- 본사의 회계 보고서 작성, 회계 감사 및 공시에 관한 본사 소재지국에서의 의무에 따라 상이
- 회사 설립 국가 내에서의 공시 의무가 있는 경우 지점 설치 후 1개월 이내에 최근 공시 회계 보고서 사본을 번역 공증을 첨부, 제출
- 회사 설립 국가 내에서의 공시 의무가 없는 경우 사무소 관련 규정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
- 회계 보고서 제출 기한. 본사 소재국의 법이 공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법에 따라 회계 보고서를 공시할 때마다 공시 후 3개월 이내에 영국의 회사 등기소에 회계 보고서 사본 제출. 회계 보고서는 등록비 15파운드와 함께 제출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후 21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본격적인 영업 개시 전 현지시장 상황을 가볍게 ‘응수 타진’하고 싶을 경우 적합한 형태로 외국 회사가 영국에서 보조적, 임시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경우 사무소 등록 규정(place of business regime)에 따라 영국에 사무소 등록을 해야 한다. 임시적인 기능으로는 창고 시설, 관리 사무소 및 내부 자료 처리 시설 등을 일컫는다.

외국 기업이 영국 내에 사무소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회사 등기소(Register)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영문이어야 하며, 영문 이외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공증된 번역을 첨부해야 한다. 등록 수수료는 20파운드이며, 개설과 동일자에 등록할 때에는 100파운드이다(스코틀랜드 또는 북아일랜드에 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각각 Edinburgh, Belfast 상업등기소에 별도 등록해야 함.).

○ 공증된 회사의 정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규정의 사본(Certified copy of the Memorandum & Articles of Association)

○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는 양식

- 회사의 이사와 비서의 명단
- 회사를 위해 근무하도록 요청된 어떠한 통고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한 사람 이상의 영국 거주자의 성명과 주소
- 이사 또는 비서에 의한 영업장 설립 일자의 법률상 공고

사무소 등록 후 신고사항: 회계 자료 보고의 경우 사무소는 본사 재무제표를 등기료(15파운드)와 함께 영국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본사 재무제표가 영국 파운드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경우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율을 기재해야 한다. 본사 재무제표 제출 기한은 결산일로부터 13개월이다. 신고 내용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나. 회사 유형

주식회사

공개주식회사는 반드시 2명의 이사와 1명의 회사비서(Company Secretary)가 등재돼야 하며, 기업은 반드시 1년에 한 번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사의 이익은 주주에게 배당으로 배분되거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관해 개인적인 책임은 없다. 한편 이사는 컴퍼니 하우스에 회사 조직, 경영진의 변동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지분을 투자한 개인 혹은 단체는 그 지분에 비율만 재무적 책임을 지며, 유한책임회사의 재무는 지분을 가진 개인 혹은 단체의 사적인 재무와 별개이다. 유한책임회사가 파산할 경우에 지분 소유자들의 개인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요 형태로는 비공개주식회사(Private Limited Companies, LTD)와 공개주식회사(Public Limited Companies, PLC) 그리고 무한책임회사(Private Unlimited Companies)가 있고 반드시 컴퍼니 하우스에 등록을 해야 한다.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이사(Director)를 등재해야 하고, 그 이사는 반드시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단체가 아닌 개인이어야 한다.

개인사업자

회사를 설립 운영하는 가장 간편한 수단으로, 모든 수익과 책임이 개인에게 귀속된다. 모든 의사결정은 개인이 하게 되며, 자금 또한 개인이 마련하게 되어 있다. 또한, 1년에 한 번 자영업자 세금평가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회사 운영에 따른 수익과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다. 회계/법무법인 안내

◦ PWC 삼일회계법인

전화번호	+44 77 1003 6546
주소	1 Embankment Pl, London WC2N 6RH
홈페이지	http://www.pwc.co.uk
이메일	kim.kyung-hwan@pwc.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이사 김경환, 과장 김미경

◦ KPMG 삼정회계법인

전화번호	+44 207 311 2979
주소	15 Canada Square, Canary Wharf
홈페이지	http://www.kpmg.co.uk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이민건 매니저

◦ 언스트앤영 한영회계법인

전화번호	+44 207 951 2000
주소	1 More London Place, London SE1 2AF
이메일	ckwak@uk.ey.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공인회계사 곽철민

◦ KPY 필립스 영

전화번호	+44 203 274 3066
주소	13 Approach Road, London SW20 8BA

이메일	Kpyra@kscacca.co.uk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대표이사 권순재

○ 루이스 실킨 법무법인

전화번호	+44 20 7074 8000
주소	5 Chancery Lane - Clifford's Inn London EC4A 1BL
홈페이지	http://www.lewissilkin.com
이메일	soyoung.lee@lewissilkin.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변호사 이소영

○ Addleshaw Goddard LLP

전화번호	+44 20 7788 5175
주소	Milton Gate 60 Chiswell Street London EC1Y 4AG
홈페이지	http://www.addleshawgoddard.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변호사 박성진

○ 스콰이어 패튼 보그즈(유케이)

전화번호	+44 20 7655 1000
주소	7 Devonshire Square, London, EC2M 4YH
홈페이지	http://www.squirepb.com
이메일	kwangkyu.park@squirepb.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변호사 박광규

○ 스티븐슨 하우드

전화번호	+44 20 7809 2541
주소	1 Finsbury Circus, London, EC2M 7SH
홈페이지	http://www.shlegal.com
이메일	shaun.park@shlegal.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변호사 박응균

○ 조철현 회계법인

전화번호	+44 20 8330 5115
주소	C A P, PARK HOUSE, PARK TERRACE KT4 7JZ
홈페이지	http://www.choacca.co.uk
이메일	admin@choacca.co.uk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이사 조철현, 실장 윤용주

◦ 최무룡 회계법인

전화번호	+44 20 8979 6761
주소	69 Station Road, Hampton, Greater London TW12 2BT
홈페이지	http://www.furuichoi.com
이메일	info@furuichoi.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변호사 최무룡

◦ 힐 디킨슨

전화번호	+44 20 7283 9033
주소	The Broadgate Tower, 20 Primrose Street, London EC2A 2EW
홈페이지	http://www.hilldickinson.com
이메일	jeff.park@hilldickinson.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변호사 박정규, 맹주영

◦ 홀만 펜워 일란

전화번호	+44 20 7264 8000
주소	Friary Court, 65 Crutched Friars, London EC3N 2AE
홈페이지	http://www.hfw.com
이메일	kijong.nam@hfw.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변호사 남기종

◦ Leigh Carr

전화번호	+44 20 7566 3900
주소	12 Helmet Row, London EC1V 3QJ

홈페이지	http://www.leighcarr.co.uk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공인회계사 방규승

○ 3CS 로펌

전화번호	+44 20 7194 8140
주소	New Broad Street House, 35 New Broad Street, London EC2M 1NH
홈페이지	http://www.3cslondon.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한국대표 유연주, 변호사 신현의

<자료원 : KOTRA 런던 무역관>

5. 청산 및 철수

관련 법 및 절차

영국에서 투자법인의 철수 및 청산은 채무관계 등의 문제만 없다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 진행될 수 있다.

1) 법인 철수를 위한 조건

○ 영국의 기업은 기업법(Companies Act 2006년)의 1003조에 의해 폐업할 수 있으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며,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폐업신청서(DS01)를 작성해서 Companies House에 제출하면 된다.

- 지난 3개월간 영업 활동이 없어야 함.
- 지난 3개월간 기업의 이름을 바꾸지 않았어야 함.
- 현재 법적 분쟁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야 함.
- 자산이나 권리를 이미 판매하지 않았어야 함.

2) 법인 철수 신청 과정

○ 법인 철수 전 신청자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반드시 법적으로 철수 준비를 마쳐야 한다.

- 법인 이해관계자와 영국 관세청(HRMC) 철수 고지
- 원칙에 따른 고용인 처리
- 법인 자산 및 계좌 처리

○ 세부 처리 과정은 www.gov.uk/strike-off-your-company-from-companies-register/close-down-your-company에서 확인 가능하다.

3) 법인 철수 시 유의사항

○ DS01 서류 제출 시 아래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 과반의 등재이사 서명이 필요함.
- 10파운드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 DS01 신청서의 복사본은 7일 이내에 세무서(HM Revenue & Customs), 채권자(Creditors), 직원 등의 관계자에게 반드시 보내야 함. 이를 어길 시 벌금 부과 대상임.

4) 기타사항

○ 법인철수/폐업 이후 은행계좌명세서, 인보이스, 영수증 등 회사 관련 자료들을 7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23달러=1파운드 (2020년 6월 기준)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29,520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20,480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10.72
비고	2020년 4월부터 8.72파운드로 인상(전년 8.21파운드)				

<자료원 : 영국 통계청>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1) 고용 조건

종업원은 고용계약이 시작되기 전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고용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장 일반적인 고용조건으로는 의료진단 (Medical Examination), 영국 내 취업이 합법적임을 입증하는 여권 사본, 노동 허가증(Work Permit-비EU 국민 해당) 제출 등이 있다.

2) 고용주의 고용 조건에 대한 문서화 의무

고용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고용주는 고용조건에 관한 문서를 작성, 근무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종업원에게 전달할 법적 의무가 있다. UK Employment Law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없음을 명기해야 한다.

- 고용 개시일
- 급여액, 급여 계산 방법, 급여 지급일
- 근로 시간
- 휴가
- 병가
- 연금
- 고용 계약 만료를 위한 통지
- 직책(Job Title) 및 담당 업무
- 근무지
- 징계 정책 및 불만 사항 처리 방법

상기 고용 조건들을 보다 상세한 고용 계약서에 포함할 수도 있는데, 상세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고용주와 종업원 간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고 보너스 지급의 재량권이 고용주와 종업원 중 누구에게 있는지 등과 같은 발생 가능한 분쟁 사항도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 특히 상위직 종업원과 고용계약 시 이러한 상세한 고용 계약서의 작성이 권고되며, 고용규모가 크면 법률회사로부터 계약서 내용을 자문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종업원의 법적 보호권(Mandatory Rights)

영국의 고용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고용주는 고용 조건에 관한 문서를 종업원에 전달해야 하며, 이러한 고용 조건은 법령이 정한 최소 기준

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최소 기준 또는 법적 보호권은 종업원의 국적과 관계없이 통상 영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에게 적용된다

근로시간

영국의 법정근무시간은 기본적으로 주 48시간이지만, 17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을 계산해 적용(opting out)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근로자는 이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단,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법정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이며,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을 계산해 적용(opting out)할 수 없다.

또한 예외적으로 비행기 승무원, 선박 근무자, 버스 운전사, 경찰 등의 특수직업군은 opting out이 불가하다.

휴가

1) 유급휴가권: 주 5일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 1년에 최소 28일(5.6주)의 유급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다.

2) 출산, 육아 관련 휴가

영국정부는 출산, 육아 관련 휴가에 대한 여성근로자 권리 향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을 발표하였다. 이 법은 2008년 10월 5일 이후 출생 자녀를 둔 여성들에게 적용된다.

출산 휴가는 총 52주로 26주의 기본 출산휴가와 26주의 추가 출산휴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출산 직후 2주는 반드시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출산휴가 시 39주차까지 Statutory Maternity Pay(SMP)를 지급받으며, 출산 휴가 첫 6주는 평균 주급의 90%를, 나머지 33주 동안은 151.2파운드 또는 평균 주급의 90%보다 낮은 것을 적용하여 지급받게 된다.

출산 휴가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26주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했어야 하며, 주급이 최소 120파운드 이상이어야 하고, 임신사실 증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고용주에 적절한 알림 방식을 취해야 한다.

3) 병가수당

20년 7월 기준 법정 병가수당은 95.85파운드이다. 4일 연속 병가 시 지급 대상이 되며 최대 28주까지 지급 가능하다.

해고

고용주는 고용 계약 종료를 종업원에게 적절히 통지함으로써 고용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법정 최소 통지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은 종업원의 근무 기간에 따라서 달라진다. 통지 기간은 계약상 통지 기간이나 법정 최소 통지 기간 중 긴 기간이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또는 계약서상 통지 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종업원은 타당한 기간 동안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통지 기간은 관련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항상 법정 최소 통지 기간은 준수되어야 한다.

1) 공정 해고 조건(이유)

- 무능(Capability): 종업원이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품행(Misconduct)
- 정리 해고(Redundancy): 보통 고용주가 전체적으로 또는 특정 지역에서 사업을 중단한 경우, 특정 작업에 필요로 하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적어진 경우, 또는 특정 위치에 필요 없는 경우)
- 불법 행위(Contravention of a Statutory Enactment)
- 기타 해고를 정당화하는 상당한 이유(Some Other Substantial Reason)

2) 부당 해고

고용주가 정당한 통지 조치 없이 종업원을 해고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이러한 일방적인 해고 조치가 종업원의 심각한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 아닌 이상 고용주가 고용 계약을 위반한 것에 해당, 고용주는 통지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와 복리 후생 급여는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종업원은 적법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인정 해고(Constructive Dismissal)

고용주가 고용 계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종업원은 사임하고, 이러한 사임이 고용주에 의한 부당한 해고 조치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고용주의 심각한 위반의 예는 직급의 하향 조정 및 일방적인 급여 삭감 등이 있다. 종업원은 고용주의 고용 계약 위반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퇴직금

종업원은 정리 해고에 의한 고용 종료의 경우가 아니면 고용 종료 시 법정 수당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종업원이 정리 해고로 해고된 경우, 동일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법정 정리 해고 수당(Statutory Redundancy Pay)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정리 해고 수당은 주급(현재 최고 538파운드)에 근무 연수(현재 최고 20년)와 연령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현재 최고 법정 정리 해고 수당은 16,140파운드이다. 종업원은 또한 특정한 경우 고용 계약 종료 수당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향상된 정리 해고 정책을 운영할 경우 계약상의 권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 있는 경우 종업원은 법정 정리 해고 수당 외에 퇴직 수당과 같은 혜택을 갖게 될 수도 있다.

다. 사회보장세

건강보험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등록은 종업원이 국민보험국의 지역 사무소에 하게 되어있으며, 외국인도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보험은 소득세와는 별도로 소득에 부과되는 강제 보험으로 보험료는 고용노동부(DWP)를 대신하여 국세청(HMRC)에서 징수한다.

○ 종업원과 고용주 부담분(2020/21 회계연도 기준)

- 종업원(월급 기준)

512 이상~792파운드 이하=0%

792파운드 초과~4,167파운드 이하=12%

4,167파운드 초과=2%

- 고용주(임직원 월급 기준)

520 이상~732파운드 이하=0%

732파운드 초과~4,167파운드 이하=13.8%

4,167파운드 초과=13.8%

○ 단, 국민보험 규칙에 따르면 외국 회사에 고용된 종업원이 해외로부터 영국에 파견된 경우 영국에 도착 후 최소 52주간에 대해서는 국민보험료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면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종업원이 영국 통상거주자가 아니어야 한다. 고용주 부담분은 종업원이 국민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이 경우 그러므로 최소 52주간의 면제 기간에는 고용주 부담분 납부 의무가 없다.

고용보험

고용주는 고용보험(Liability Insurance)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최소 500만 파운드 이상을 커버해야한다. 이를 어길 시 매일 2,500파운드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조사관이 고용보험 증명서(EL Certificate)를 요구했을 때 공개를 거절하면 1,0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내에 산재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연금

영국의 모든 고용자는 조건을 충족하는 피고용자의 의사에 따라 피고용자를 연금계획에 등록하고 일정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연금계획에 등록한 후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피고용자의 조건

- 22~65세(국가 연금 연령으로, 영국은 2011년 4월 법 개정을 통해 기존 65세였던 정년 폐지)
- 자동등록제도는 연간 수입 6,240파운드에서 50,000파운드

- 등록 후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

- 등록 날짜
- 등록된 연금계획 종류
-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부담액
- 원치 않으면 연금계획을 취소하는 방법
- 정부가 제공하는 Tax relief를 받는 방법

- 20년 7월 기준 고용주 기부율(contribution rate)은 3%, 피고용자는 5%이다.

- * 자세한 내용은 <https://www.gov.uk/workplace-pensions/what-you-your-employer-and-the-government-pay>

7. 세금

가. 조세제도

법인세

영국 정부는 기업들의 세금부담 경감을 통한 경기 부양을 위해 2017년부터 법인세율을 기존의 20%에서 19%로 인하했으며, 현재까지 19%가 적용되고 있다.

회사가 영국 회사 등기소(The Registrar of Companies)에 등록하면 등록 사실이 영국 국세청에 통보되며, 영국 국세청은 통상 CT41-G 서식을 당해 회사로 발송한다.

1) 영국 내 해외법인의 연락사무소. 지점 및 영국 자회사의 법인세 상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사무소가 지점, 대리인 또는 조세 조약상의 고정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즉, 영업상의 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연락사무소는 영국에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다.
- 지점(Branch): 지점이 영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점의 소득에 대해 영국 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 지점의 소득이란 영국에 귀속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 영국 내 자회사(Subsidiary): 해외 법인의 영국 자회사는 영국 거주 법인이므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영국에서 법인세를 부과한다. 단,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는 일정 한도 내에서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 설립되지 않은 회사라도 영국에서 주로 관리되고 통제되는 회사라면 영국 거주법인으로 간주돼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영국에서 과세된다.

2) 법인세 신고 및 납부

법인세 자진신고 납부제도(CTSA; Corporate Tax Self-Assessment)에 따라 법인이 회계 기간(4월 1일~다음해 3월 31일) 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다. 자진신고 제도로 변경 이후 이전세(Transfer Pricing)와 해외 관계회사(CFSs; Controlled Foreign Companies) 세액 등에 관한 책임은 신고 회사가 지게 돼 있어 진출 법인들은 세금 신고 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데, 사전에 전문회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세무조정사항(세금 공제)
 - 세무상 감가상각비(Capital Allowance)
 - 접대비
 - 자본적 지출(법률 비용, 수선비, 특허, 상표권 관련 비용) 등

개인소득세

영국 내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인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과세 연도는 매년 4월 6일~다음 해 4월 5일이다.

- 원천징수(PAYE, Pay As You Earn): 대부분의 영국 납세자가 이에 해당한다. 근로 소득과 경비. 후생적 급여 보고 체계를 통해 전체 납부해야 할 세액이 원천징수되기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자진 소득신고(Self-Assessment): 자영업자는 SA Form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 회계연도 2020/21 기준
 - 소득구간(£ 12,501~50,000)의 경우 소득세(예금소득 포함)는 20%, 배당소득세는 7.5%이다.
 - 소득구간(£ 50,001~150,000)의 경우 소득세(예금소득 포함)는 40%, 배당소득세는 32.5%이다.
 - 소득구간(£ 150,000 이상)의 경우 소득세(예금소득 포함)는 45%, 배당소득세는 38.1%이다.

- 비과세 소득(Tax-Free Allowances) : 회계연도 2020/21 기준 12,500파운드 이하의 소득은 비과세이다.

부가가치세

식품류 및 서적류, 아동의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높은 부가가치세(20%)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 영국 정부는 경제 불황을 타계하기 위해 VAT를 인하, 2009년에는 한시적으로 VAT 세율로 15%를 적용했으나, 2010년에 17.5%, 2011년 1월 4일부터 20.0%로 다시 인상해 2020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특별소비세

영국에서 생산되거나 영국으로 수입되는 석유, 주류, 담배에는 특별소비세(excise duties)가 부과된다. 영국 관세청에서는 품목별로 구분해 특별소비세율을 달리 책정하고 있으며 주류의 경우 단위는 헥토리터(100리터)이다.

품목별 특별 소비세율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trade-tariff-excise-duties-reliefs-drawbacks-and-allowances/uk-trade-tariff-excise-duties-reliefs-drawbacks-and-allowances>

8.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1979년 10월 24일부터 금융, 보험 등 서비스 부문의 흑자 확대를 겨냥, 정부의 외환 통제를 전면 철폐하고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에 의한 환율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외환 규제

1979년 10월에 외국 외환 규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국내 자금, 해외 자금 모두 무제한으로 조달할 수 있다. 이는 파운드에 한정되지 않고 유로, 달러 등 외국 통화도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영국에서는 외국 기업의 국내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관한 제한이 없다. 단, 금융 기관과의 각각의 거래에 따라 조건이 다르고, 모회사로부터의 보증이나 그 외 다른 형태로 담보를 설정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있다. 대외 차입에 대해서도 규제는 없고 영국 통화 이외의 외화로도 차입도 가능하다. 하지만 국제 연합이나 유럽 연합의 정치적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와의 거래는 금지되고 있다. 또한, 통상의 유가 증권이나 금융 상품의 규제가 없고, 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특별한 제한은 없다.

영국은 외국 투자자가 정당하게 취득한 이익금의 대외 송금, 곧 과실 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배당, 원본, 이자, 로열티의 송금도 자유롭다.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영국 통계청이 2020년 5월 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영국의 전체인구는 약 6,679만 명으로 예상되며, 그 중 잠재 소비 인구(16세~64세, 노동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62.5%를 차지한다.

<자료원 : 영국 통계청, 2020년 기준>

소비 성향

소비자들의 보수적인 성향과 높은 브랜드 충성도가 영국시장 진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과 확연한 차이가 없는 이상 소비패턴을 바꾸려 하지 않으므로 차별화 전략이 중요하다. 식품류 및 서적류, 아동의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높은 부가가치세(20%), 높은 마진의 유통구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관계로 소비자들은 주로 부활절(4월), 학교 개학 시기(1월, 9월), 성탄절(12월 말), 여름과 겨울의 경기 대 바겐세일 시즌을 이용해 상품을 구매한다. 바겐세일이 시작되면 평균적으로 경기의 30%를 할인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최대 80%까지 할인하기도 한다. 특히 성탄절 다음 날인 박싱데이(Boxing Day)는 전통적으로 연중 최대 세일이 이루어지는 날로 인식되며, 최대 90% 이상까지도 할인되기 때문에 영국인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사재기하는 연중 최대 쇼핑 대목이기도 하다.

영국의 소비문화상 신중하게 구입한 뒤 제품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구매하는 것을 싫어하며, 시간 낭비를 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다분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품과 서비스의 질이 오랜 기간을 거치며 입증된 브랜드를 선호하며, 이는 오래된 브랜드일수록 더 큰 신뢰를 보내는 영국인의 소비문화를 형성했다. 자국 시장에서 수십, 수백 년 이상 신뢰를 쌓은 전통 브랜드 선호는 자국산 선호문화와도 직결되며, 이는 시장에 새로 진입한 신흥 브랜드가 차별을 받을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영국인들도 무조건 가격만을 따지는 저가 선호 소비문화에 익숙해졌다. 브랜드 가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의류, 패션 시장이 이 같은 새로운 소비문화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초저가 소매체인의 확산과 고가제품을 모방한 저가제품의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 상품 이미지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에 대한 이미지는 점차 상승하고 있다. 특히 삼성, LG는 핸드폰과 TV 시장에서 연이은 판매 성공을 거두며 전자제품 시장을 중심으로 인지도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현대차와 기아차도 고객평가에서 높은 평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대기업이 제품과 국가 이미지를 함께 홍보하지 않아 이들 제품을 한국산이라고 인지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그 외 중소기업 및 상품에 대한 인지도에서도 아시아 국가의 저가 생산품이라는 인식보다는 품질에 기반을 둔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로 인식하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방탄소년단(BTS)의 런던 공연 등 한류 인기의 상승으로 K-beauty 상품이 젊은 여성층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철저한 회사 및 제품 소개 자료 구축

영국 바이어 초기 접촉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영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올바른 영어로 작성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반드시 원어민의 감수를 받아 오타 없이 잘 작성된 카탈로그, 가격표, 샘플 및 사용매뉴얼, 영문 홈페이지를 구비해야 하고, 자료는 논리적으로 정리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품의 우수성에도 영국 바이어의 초기 관심을 끌지 못해 수출로 이어질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므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충분한 바이어 조사

영국은 다른 유럽국가와 달리 자국의 제조업체가 거의 없이 수입에 의존하는 제품군이 많은 편이므로, 기존 거래 중인 공급업체에 대한 조사와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에 동일 품목이라도 상이한 영국의 시장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부품류 수출의 경우, 영국의 제조업이 많이 축소되어 생산 라인에 투입되는 각종 부품을 직접 수입하지 않고 디스트리뷰터나 에이전트를 통해 공급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규모가 있고 유능한 디스트리뷰터나 에이전트 발굴이 중요하다.

3) 상담 시 시연할 샘플의 준비

세일즈 출장 시 기계 및 도구의 경우는 제품 성능을 시연하기 위해(핸드 캐리가 가능할 경우) 샘플을 지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세일즈 출장 이전에 영국 현지 바이어들이 원하는 모델, 제품군을 파악하여 미팅 전 샘플군을 구성한다면 성공적인 세일즈 출장이 될 수 있다.

4) 유능한 통역원 채용

상담 시 영어표현의 부적절한 사용 때문에 부정적인 상담 결과를 초래하는 예가 많다. 따라서 현지 사정에 밝고 영어가 유창한 통역원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KOTRA의 '세일즈 출장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현지 학생커뮤니티 홈페이지, 각 대학교 한인학생회 등을 통해 직접 통역원을 찾을 수 있다. 상담 장소(이동 거리)나 시간, 난이도, 통역지원 범위 등에 따라 통역료는 차이가 있으나 통상의 일일 통역료는 약 150파운드 수준이다. (9:00~17:00 근무시간 기준, 교통비/숙식비 별도)

5) 정확한 담당자 파악

정확한 수입(구매) 담당자를 파악하여 동 담당자의 개인 e-메일 주소 및 직통 전화번호 및 팩스 번호를 알아내야 한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영국 기업은 대부분 대표전화로 전화할 경우 리셉션 직원이 전화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간단하게 본인의 회사와 통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하며 적합한 담당자를 바꿔 달라고 하거나 바꿔주지 않으면 이메일로 문의 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담당자 성명 및 이메일 주소를 문의해야 한다.

대부분 중견 이상의 기업들은 세일즈, 마케팅, 구매 부문의 담당자가 별도로 있으며 품목에 따라 또는 지역에 따라 담당자가 다를 경우가 많으며 때에 따라서는 담당자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영국에서는 담당자하고 접촉 없이는 일의 진행이 전혀 안되며(담당자 부재 시, 휴가 시 다른 직원이 대신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음) 담당자에게 권한이 많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담당자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규모가 작은 영국 기업 접촉 시에는 구매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Managing Director(대표)를 직접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복장

복장은 검정, 진한 곤색, 진한 회색과 같은 어두운 색상의 옷을 주로 입으며, 전통적인 세로의 가는 줄무늬도 자주 착용한다. 요즘은 금요일만 스마트 캐주얼(Smart Casual)을 허락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으나 비즈니스 상담에서는 전통적인 정장 착용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고급 호텔이나 음식점에서 식사할 경우에도 재킷과 넥타이, 그리고 구두(운동화 금지)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약을 한 후 dress code에 대해 기본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다.

2) 인사

영국인들은 제3자를 통해서 소개받는 것을 좋아하나, 만약 그것이 불가피한 경우 스스로 소개를 하는 것이 좋다. 보통 남성끼리는 자연스럽게 악수하며 상대 여성과는 주로 유럽식 인사(뺨을 대는 인사)나 가벼운 악수를 건넨다. 상대 여성이 취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대처하면 되며 유럽식의 경우 두 손으로 양어깨를 가볍게 감싸고 양쪽 뺨을 번갈아 대며 가벼운 입술 음을 낸다.

무슬림, 유대인 등 종교적, 민족적으로 다양한 영국사회의 특성상 특정 문화에서는 이성 간 신체접촉이 불가하므로 비즈니스 석상에서도 악수 등을 청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괜찮은지 먼저 물어보는 게 예의다. 인사를 할 때에는 날씨와 같은 흔한 주제에 대해 간단한 코멘트로 짧은 답소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생활이나 인적 사항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은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

3) 선물

대부분 영국인들은 사업상 파트너나 동료와는 선물을 주고받지 않으나,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선물을 하는 경우는 있다. 이 경우에는 기념 문구를 담은 펜, 책, 와인, 샴페인 등의 품목부터 식사 대접 및 공연 티켓도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몇몇 유통업체나 학교, 기관 같은 경우는 규정상 개인 선물은 신고하게 되어있어 업체/기관 내 선물을 공유하거나 업체/기관 이름으로 기부하게 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크리스마스, 연말연시는 카드를 보내는 편이며, 만약 영국 업체로부터 먼저 선물을 받았을 경우는 선물에 대한 감사 카드를 보내는 것이 좋고 상황에 따라 업체가 부담스러워 하지 않을 선에서 저녁을 초대하거나 답례하도록 한다. Card factory, Scribbler 등 다양한 카드를 판매하는 전문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보통 카드 안에는 간단한 문구와 서명만 하는 편이다.

영국 가정에 초대받았을 경우 와인, 꽃, 초콜릿 등을 선물한다. 양주의 경우는 취향의 차가 심한 편이어서 좋은 선물 품목은 아니다. 꽃을 선물할 때에는 되도록이면 빨간 장미, 하얀 백합 또는 국화는 피하도록 한다.

영국인 가정에 머물 경우라면 한국에서 기념품을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미처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영국인 가정에 필요하거나 어울릴 만한 선물을 추후 우편으로 보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귀국한 후 영국인 가정에 감사 편지를 보내는 것도 예의이다. 영국인의 특성상 비싼 선물이 아니더라도 작은 선물에도 감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처럼 사소한 것에 신경을 씀으로써 영국인들로부터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다.

4) 약속

대부분의 회사들이 주 5일제 근무를 하며,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5시, 점심시간은 오후 12시에서 2시 사이이다. 약속은 보통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이내에 하는 것이 좋으며 약속을 하지 않고 직접 회사를 방문하는 것은 큰 결례이다.

또한 부활절(3월 말~4월 중순), 여름휴가 기간(7~8월)과 크리스마스(12월 중순~1월 첫째 주)에는 약속을 피하는 것이 좋다. 약

속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만찬이나 비즈니스 네트워킹 리셉션과 같은 Social Event에 초대받을 경우에는 약속시간보다 15분 정도 늦게 도착하는 것도 예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오히려 일찍 가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대중교통 시설이 노후화된 관계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약속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5) 외식 및 식사

대부분의 외식은 레스토랑, 펍(Pub), 카페 등에서 이루어진다. 펍에 갈 경우 보통의 경우 맥주 1파인트, 원할 경우 하프(1/2) 또는 서드(1/3) 파인트를 주문한다. 보통 차례로 번갈아 가며 한 사람씩 돈을 지불한다. 가격은 1파인트에 약 4~5파운드 수준이며 대표적인 맥주는 스텔라, 크로넨버그, 포스터, 기네스 등이 있다.

한국과는 달리 선 채로 이야기하면서 마시는 것이 보통이며 푸짐한 안주보다는 가볍게 땅콩이나 감자칩(Crisps)을 선호한다. 식사 시간대에는 저렴하고 맛도 괜찮은 요리를 제공하는 펍들도 많다. 상대방을 초대할 시에는 비슷한 환경과 비슷한 직급의 사람들을 초대하며 초대 받은 사람이 언급하지 않는 한 사업과 관계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호텔이나 유명한 레스토랑이 아닌 패밀리나 체인 레스토랑도 많이 위치해 있어 영국인들은 대부분 이런 곳에서 외식을 즐기는 편이다. 평균 1인당 점심시간 때는 10~15파운드 정도, 저녁 시간 때는 20~30파운드 정도의 가격이다. 또한, 보통 레스토랑들은 세트메뉴도 제공하여 조금 더 저렴하게 식사를 즐길 수가 있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많이 위치해 있으며 모던 유러피안(프랑스식+영국식)의 요리를 하는 레스토랑도 흔한 편이다.

6) 호칭

영국에서는 신분에 따른 호칭을 제대로 부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영국인들 사이에서는 주로 이름을 부르지만, 처음부터 이름을 부르면 큰 실례이므로 상대방이 이름을 부르자는 제안을 해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한다. 여왕, 주교, 장군 등과 같은 신분에 따른 호칭이 있는 경우나 공식 행사의 경우(예: Mr. Chairman, The Commander-in-chief, The Prime Minister)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명함에 나와 있는 이름을 부르도록 한다.

명함의 이름을 부를 때 영어 이름이 '이름', '성' 순으로 된 점을 주의하고, 일반적으로 남성의 경우는 Mr. 여성의 경우는 결혼 관계가 확실치 않을 시 'Ms.'라는 타이틀과 성을 붙여 사용한다. 작위를 받은 남성의 경우 'Sir', 부인은 'Lady'라는 호칭을 쓰며 작위를 받은 여성의 경우 Dame을 붙인다. 그 외 Dr, Professor 등의 타이틀이 있다면 그대로 칭하는 것이 예의이다.

3.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기술적인 우수성을 입증한 사례

M사는 디지털 사인 시스템과 POP(Point of Purchase) 업계의 선두 주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현재 모바일 관련 특허를 포함, 모두 120여 개의 지적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벤처 기업이다. 연속된 GD 마크 획득 및 다수의 수상 경력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는 K사 등 주요 통신사들과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국을 포함한 1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동사는 자사 주력 상품에 대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기능 대비 가격 경쟁력 및 품질 안정성을 바탕으로 수출 성공을 이끌고 있으며 지속적인 첨단 신제품 연구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디지털 셋톱박스 개발업체인 H사의 경우도 기술력으로 영국 시장 진출에 성공한 기업의 또 다른 예라 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모든 방송 매체의 디지털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1997년 제1세대 셋톱박스를 유럽에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유럽, 중동, 미국, 아시아에 걸친 전 세계적인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북아일랜드에 현지 법인을 세우고 마케팅 기능과 생산 기지의 기능을 수행하며 유럽 시장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H사의 이런 성공 비결은 가격 정책에 따른 성장전략보다는 축적된 뛰어난 기술력에 근거한 고품질의 자체 브랜드 제품 판매를 통한 시장 개척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D사는 일반화장품과의 차별화를 통해 피부과 전문의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제품을 개발하여 유럽의 BB 제품과 함께 한국의 화장품으로는 최초로 영국의 최대 드럭 스토어인 '부츠 (Boots)' 에 입점했다.

그 외에도 보안 통합 솔루션 제공 업체인 S사가 차별화된 홍채 인식 제품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영국에 1,350만 달러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바도 있다

2) 디자인 향상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한 사례

한국의 대표적 도자기 회사인 H사는 '도자기 명품화'를 선언한 후 명품 도자기 세트를 출시하여 국내는 물론 도자기의 본고장인 영국에도 수출에 성공했다. 이 회사는 우수한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지난 1995년에 디자인 스쿨 '프로아트'를 오픈했으며 각종 첨단 장비인 컴퓨터 색분해기, 드럼스캐너 등의 장비 지원과 디자인 부문의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해 왔다.

그러한 노력 끝에 디자인 분야에서 최고의 상인 '디자인 포장 상'을 받음으로써 디자인 경쟁력을 대내외적으로 평가받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동양적 분위기의 십장생 시리즈와 아라베스크 문양의 유럽 스타일은 이 회사만이 가진 디자인의 특징으로 유럽의 디자인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들은 현재 영국 주요 도자기회사에 OEM 수출을 하고 있으며 영국 최대의 명품 백화점 해롯의 고급 도자기 섹션에 자체브랜드 제품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 50여 개 국에서 안정적인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3) 평판(Reference)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성공한 사례

제품을 구매하는 바이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짐작해 볼 수 있겠는데 처음 거래하게 되는 회사의 신뢰도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평판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영국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조 산업군의 비율은 매우 낮으며, 디자인, 금융, 컨설팅 등의 고급 서비스업들이 산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 많은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제품정보의 홍수 속에서 회사나 제품의 신뢰도를 평가해야 하는 영국의 바이어들은 우선 의심부터 하고 든다. 따라서 수입 고려대상이 되는 공급업체의 경우 이미 다른 시장에서 대형바이어로부터 획득한 평판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산업성유를 생산하는 J사는 이러한 영국 바이어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KOTRA의 평판을 아주 잘 이용하여 성공한 케이스이다. J사는 KOTRA 런던 무역관에 출장상담 지원을 신청했고 무역관은 당시 시장에서 유력한 바이어들이 6개사를 상담 주선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J사의 자체 인지도는 전무했고 가진 것은 출장자의 산업성유에 대한 지식 하나뿐인 상황이었다. 이어진 거래에서 신용을 잘 지켜 그 중 5개사를 고정거래선으로 확보하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소개하여 바이어들에게 공급선의 신뢰성에 힘을 실어 준 것이 성공의 요인이 된 좋은 예이다.

화장품 생산 업체인 D사도 피부과 전문의를 통해 고기술 화장품을 개발하여 영국 최대 드럭 스토어에 입점했는데 최종적인 입점 성공의 요인은 이미 미국의 세포라사의 매장에 입점해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단시간에 단독매장을 갖게 되었다는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

4) 정확한 시장조사를 통한 타깃 고객층과 유통채널 공략으로 성공한 사례

영국시장은 기존 브랜드 충성도가 높아 진출에 애로가 많은 시장으로 진입전략이 필요하다. 런던무역관은 '19년 3월부터 H사를 지원하

고 있으며 제품 시장조사부터 진행, 고객 타깃에 맞는 고급화 진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타 브랜드에 비해 가격대가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백화점, M&S 등 프레스티지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해로즈 백화점은 현재 판매 중인 마차 제품과의 차별성을 부각하여 분석하였으며, 매대 POG 구성까지 직접 제안하였다. 이 결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의 대표 명품 백화점 해로즈와 계약을 성사시켰고, 차 카테고리 내에서는 한국 브랜드 최초로 계약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를 통해 영국에서 우리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함께 소비자에 큰 호응을 얻고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5)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 성공사례

○ 사례 1: 건강음료

C사의 제품은 건강식품에 해당하는 음료들이다. 한약 맛에 익숙한 한국의 소비자들에게는 이미 좋은 반응을 보이는 제품이나, 영국인에게는 생소하고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맛이라 영국시장 판매에 애로가 예상되었다.

실제, 초기 바이어들과의 상담 시 바이어들은 영국인에 익숙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시장반응을 파악하기 위해 소량의 제품만을 매장에 비치해 소비자의 반응을 살피겠다는 수동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더라도 판매가 불확실한 제품의 재고 부담 때문에 처음부터 대량 오더(컨테이너 분량)나 주기적인 오더가 불가하다고 했다. 바이어들의 요청사항인 소량의 주문에도 즉각적인 배달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때 C사 제품에 대한 구매를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시장 초기접근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런던 무역관은 C사에 물류창고를 이용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C사는 바이어들의 소량 오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일정 물량을 런던 무역관의 물류 창고에 보관하고, 바이어들의 요청 시 즉각 대응하는 체재를 구축했다. 이로써 영국의 바이어들은 생소한 제품에 대한 재고부담 없이 초기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비하고 난 후, 우리 무역관은 잠재 바이어들과의 상담 시 이 부분을 적극 홍보하는 마케팅 전략으로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세일즈 활동을 펼쳤다.

잠재바이어 중 영국의 메이저 건강식품 판매점인 whole Foods, Holland & Barrett, Booths 등에 납품하는 Unione Trading사와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MOU의 주요 내용은 C사에서 영국에 재고를 보관하고 Unione Trading사에서 필요시마다 소량 구매하는 것이었다. MOU 체결 후 재고부담을 해결된 Unione Trading사는 C사의 제품을 영국시장에 알리기 위해 Food & Organic 전시회에 C사의 제품을 전시했으며, 영국인들의 제품에 대한 반응을 지속해서 C사와 공유하여 새로운 제품개발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바이어의 협력은 C사에서 런던 무역관의 공동물류창고를 활용하여 바이어들에게 재고 부담을 줄여주어 가능할 수 있었다.

C사는 런던 무역관의 공동물류 창고활용을 주요한 마케팅 포인트로 삼아 마케팅을 실시하여, 공동물류서비스 이용을 시작한 후 4개월 만에 수출실적이 없었던 영국에서 2만 불 이상의 처녀 수출을 달성할 수 있었다.

○ 사례 2: 패션 의류 원단

M사는 영국 패션 원단 시장에 관심이 많았으나 폐쇄적인 성향이 강한 영국시장에 적극적인 시장 공략에 엄두를 못 내고 있던 차나, 2012년 7월 한-EU FTA 때문에 관세가 폐지된 점을 장점으로 인식, 코트라의 공동물류패키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

영국의 중저가 패션 원단시장은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고 중국의 원단 생산업체들이 이미 영국의 중저가 패션원단시장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어 전반적인 패션 원단의 가격이 매우 낮아진 상태여서 우수한 품질에도 치열한 가격경쟁 때문에 한국의 원단업체는 특정 아 아이템을 제외하고는 영국에 수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M사는 코트라 런던 무역관 지사화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여, 영국 패션 원단의 메카라 할 수 있는 맨체스터, 레스터 지역의 업체들과의 꾸준한 미팅을 통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온 결과 M사 R사 F사 P사로부터 약 12만 불의 첫 수출을 달성하는 쾌거를 얻을 수 있었다.

영국의 바이어들은 M사의 원단을 매우 마음에 들어 했으며 FTA로 인한 관세폐지로 어느 정도 가격경쟁에서도 중국제품과 동등한 입장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영국 바이어들은 항시 발 빠르게 움직이는 패션산업은 주문 시 걸리게 되는 Lead Time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장기적 거래는 힘들 것이라며 우려를 했다. 그러나 바이어 R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런던 무역관에서 제공하는 물류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자 R사는 물류서비스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곧바로 추가 오더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첫 거래 후 R사는 M사로부터 장기적인 안목에서 원단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이는 런던 무역관에서 제공하는 물류서비스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4.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1) 일반 여행 및 방문객: 6개월 무비자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사증면제협정 및 일방주의에 의거, 6개월 동안 사증(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유급, 무급에 상관없이 일은 할 수 없다. 영국 입국심사 시에는 영국 체류에 필요한 충분한 비용과 방문지(숙소 주소) 및 여행 계획, 그리고 한국 귀국 일정 등에 관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입국 허가 여부와 체류 기간에 관련된 사항들은 이때 결정된다. 출국 전에 영국해외공관(주한 영국대사관)으로부터 직접 장기 체재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체류 기간 연장을 원하면 체류 기한 만료 전에 소정의 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Home Office(Immigration Dept.)에 송부하거나, 여권을 지참하여 각 지방 이민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연장 요청을 해야 한다.

2) 출장자

영국에서의 회의 참석, 사업상 협상 또는 재화/용역 구매 계약 체결, 사실 관계조사 등 일시적인 활동을 하면 일반 여행객과 같이 6개월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만약, 재화나 용역을 직접 일반에게 판매하는 등의 생산적인 노동을 희망하면 노동 허가(Tier 2 General Working Visa)가 필요하다.

또한 재화나 용역을 일반에게 판매하지 않더라도, 영국기업과 연관되어 실제 노동을 수반하게 되면 비즈니스 방문 비자(최대 6개월)를 미리 발급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3) 출입국 심사

2019년 5월 20일부터 런던 히스로, 게트윅 공항, 파리·브뤼셀 유로스타역 등 전자입국게이트가 설치된 전역에서 한국인에 대해 자동입국심사(E-passport gat)제도가 적용된다. 자동입국심사 대상은 18세 이상 한국인 중 전자여권 소지자와 성인 보호자와 동행하는 만 12~17세 청소년이다. 단, 최대 6개월의 단기 교육을 위한 방문자, Tier 5 사증 카테고리 중 스포츠, 예술 후원 증명서 소지자, 노동 허가서 소지자, 영국에서 영구 결합을 모색하는 EEA 국적자의 가족 구성원은 이민관 직원 대면 인터뷰를 거쳐 입국 도장을 받아야 한다.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1) 외화 반·출입 한도

○ 10,000유로 또는 그 이상의 외화를 소지하고 영국 출입국시에는 반드시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이는 지폐, 동전, 은행환어음, 수표(여행자 수표 포함)를 포함한다.

○ 신고방법

- 온라인: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tax.service.gov.uk/submissions/form/declare-cash-you-carry-into-or-out-of-the-uk/About-you?n=0&se=t>)에서 여행일 포함 3일 전까지 신고

- 오프라인: 공항, 항구(port) 에서 BOR9011 양식을 요청하여 작성 후 복사한다. → 공항, 항구의 drop-box에 넣고, 사본은 세관에 보여준다. 만약 신고하지 않았을 때나 정확한 정보를 표기하지 않았을 경우 5,000파운드 이하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2) 휴대품 면세 한도

○ 휴대물품의 정의

-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이 상업용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여행자가 개인용 또는 선물용으로 휴대하는 신품 또는 중고 물품이다.

○ 휴대물품 범위(EU 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 390파운드 이내의 물품, 맥주 16L, 와인 4L, 담배 200개비(10갑)의 경우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기준 이상일 경우 세관 신고를 해야 한다.

○ 세관 신고

- 면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휴대품 가격(최대 630파운드)의 2.5%의 세율이 적용되며, 휴대품이 630파운드 이상일 경우 부가세 역시 지불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gov.uk/duty-free-goods/arrivals-from-outside-the-eu> 참조

5.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전화번호	+44 20 7227 5500
주소	60 Buckingham Gate, London SW1E 6AJ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gb-ko/index.do
비고	koreanembinuk@mofa.go.kr

○ 주영 한국문화원

전화번호	+44 20 7004 2600
주소	Korean Cultural Centre UK, Grand Buildings, 1-3 Strand, London WC2N 5BW
홈페이지	http://london.korean-culture.org/ko/welcome
비고	info@kccuk.org.uk

○ 한국은행

전화번호	+44 20 7382 0580
주소	8th Floor, Tower 42, 25 Old Broad Street, London, EC2N 1HQ
홈페이지	http://www.bok.or.kr
비고	boklondon@bok.or.kr

○ 금융감독원

전화번호	+44 20 7397 3990
주소	4th Floor, Aldermary House, 10-15 Queen Street, London EC4N 1TX
홈페이지	http://www.fss.or.kr/fss/kr/main.html
비고	london@fss.or.kr

○ 한국관광공사

전화번호	+44 20 7321 2535
주소	3rd Floor, New Zealand House, Haymarket, London SW1Y 4TE
홈페이지	https://gokorea.co.uk/

비고	london@gokorea.co.uk
----	----------------------

○ 한국수출입은행

전화번호	+44 20 7562 5500
주소	3rd Floor, Moorgate Hall, 155 Moorgate, London EC2M 6XB
홈페이지	https://www.koreaexim.go.kr/site/uk
비고	kexim.london@keximbank.co.uk

○ 한국산업은행

전화번호	+44 20 7426 3550
주소	99 Bishopsgate, London EC2m 3XD
홈페이지	https://www.kdb.co.kr/index.jsp
비고	london@kdb.co.kr

<자료원 : KOTRA 런던 무역관(20년 9월 기준 최신)>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국제통상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Trade)

전화번호	+44 20 7215 5000
주소	3 Whitehall Pl, Westminster, London SW1A 2HP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international-trade

○ 외교부(Foreign, Commonwealth Office)

전화번호	+44 20 7008 1500
주소	King Charles St, Westminster, London SW1A 2AH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foreign-commonwealth-office

○ BBC(영국 국영방송국)

전화번호	+44 37 0010 0222
주소	Broadcasting House, Peel Wing, Portland Place, London, W1A 1AA
홈페이지	https://www.bbc.co.uk

○ 영국산업연맹(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전화번호	+44 20 7379 7400
주소	Cannon Place, 78 Cannon Street, EC4N 6HN London, United Kingdom
홈페이지	https://www.cbi.org.uk

○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전화번호	+44 84 5601 3034
주소	1 Drummond Gate, Pimlico, London SW1V 2QQ
홈페이지	https://www.ons.gov.uk

○ 공업표준관리청(BSI Group)

전화번호	+44 34 5080 9000
주소	389 Chiswick High Road, London, W4 4AL
홈페이지	https://www.bsigroup.com/en-GB/

<자료원 : KOTRA 런던 무역관(20년 9월 기준 최신)>

6.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0.81 파운드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4.91
2	식품	비빔밥	1인분	14.17
3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15.38
4	식품	신라면	1봉지	1.25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1잔	3.08
6	음료	생수(마트, 최저가)	330ml	1.65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330ml	2.19
8	의료	항생제	12정	0.54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2.3
10	교통	지하철요금	기본요금	3.83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7.66
12	서비스	헤어컷(시내 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46.13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L	1.98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	0.01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13.84
16	여가	담배(말보로라이트)	1갑	16.85
17	여가	소주 (한식당내 판매최저가)	360ml	15.38
18	임금	최저임금	법정최저(25세이상 기준)	12.62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	연간	18893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	0.92

<자료원 : 런던무역관 자체조사>

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영국의 화폐단위는 파운드 스텔링(Pound sterling)이다. 코드는 GBP이며, 화폐단위는 페니(1p), 펜스(페니의 복수형), 파운드(£)로 나뉜다.

동전으로는 1p(페니), 2p(펜스), 5p(펜스), 10p(펜스), 20p(펜스), 50p(펜스)가 있고 지폐로는 £1(파운드), £2(파운드), £5(파운드), £10(파운드), £20(파운드), £50(파운드)가 있다.

기본적으로 1페니=£0.01, 2펜스=£0.02, 5펜스=£0.05, 10펜스=£0.1, 20펜스=£0.2, 50펜스=£0.5이다.

환전방법

런던 중심부 곳곳에서 환전소(Foreign Exchange)를 쉽게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환전소는 별도의 수수료(Commission)는 부과하지 않으나, 서로 각각 다른 환율 적용하기 때문에 환전 시 2~3명의 환전상에게 물어본 후 환율 비교를 한 후 환전하도록 한다.

신용카드 이용

런던의 경우 대부분의 상점과 ATM에서 VISA, MASTER, MAESTRO 등의 글로벌 카드를 수용하며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다. 한편 신용카드를 이용해 ATM에서 환전 가능하나, 수수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나. 교통

교통상황

영국의 도로는 좁고 복잡해서 교통체증이 심하다.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런던의 경우 교통 혼잡 구역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어 이 구역을 지나는 차들은 교통혼잡비(congestion charge)를 내야 한다. 코로나 19의 영향에 따라 시내 교통량 증가를 우려하여 2020년 6월 22일부터 요금이 일시적으로 상향조정되었고, 적용 일시도 변경되었다. 변경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적용 일시: 매일(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요금: 하루 15파운드

버스

컨택리스(Contactless) 교통카드의 활성화로 런던 버스 기사들은 더 이상 현금으로 요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오이스터 카드 사용을 권장하며, 런던 시내 이용요금은 오이스터 카드로 편도£1.50이다.

영국 버스는 탈 때 한번 찍고 내릴 때는 카드를 찍지 않는다. 환승은 처음 승차 시 기준으로 한 시간 이내에 같은 카드를 사용했을 때 무제한으로 가능하며 트램에도 적용된다.

택시

영국 택시는 3단계의 시간 할증 요금제가 적용된다. 1구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05:00~20:00, 2구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20:00~22:00, 주말 05:00~22:00, 3구간은 매일 밤 22:00~05:00 및 공휴일이 해당된다.

구분 이동시간 1구간 / 2구간 / 3구간

1마일 약 6~13분 £6.20~9.60 / £6.20~9.60 / £7.00~9.60
2마일 약 10~20분 £9.40~15.0 / £9.80~15.0 / £10.60~15.00
4마일 약 16~30분 £16.00~24.00 / £18.00~24.00 / £18.00~28.00
6마일 약 28~40분 £25.00~31.00 / £31.00~34.00 / £31.00~34.00

히드로 공항~런던 시내는 약 30~60분이 소요되며, 가격은 약 £48.00~90.00이다.

* 자료: TRANSPORT FOR LONDON (<https://tfl.gov.uk/>)

지하철(Tube)

런던 지하철(London Underground)은 1~9존(Zone)으로 지역을 구분한다. 1존이 시내 중심부를 나타내며 총 12개(DLR 포함)의 노선으로 운영되며, 역에서 티켓(종이)을 구매하거나 선불식 교통카드(Oyster card)로 이용이 가능하다.

o Oyster Card(오이스터 카드)

- 런던 내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전차 등) 이용 시 사용하는 선불식 교통카드
- 온라인, 오프라인(지하철 역)에서 구매 가능(보증금: 5파운드/지하철역에서 카드 반납 시 보증금과 함께 충전 잔여금 환불가능)
- 요금(2020년 7월 기준, 향후 변동 가능)

오이스터 카드 이용 요금

구분 Off-Peak / Peak / 현금(편도요금)

Zone 1 £2.40 / £2.40 / £4.90
Zone 1~2 £2.40 / £2.90 / £4.90
Zone 1~3 £2.80 / £3.30 / £4.90
Zone 1~4 £2.80 / £3.90 / £5.90
Zone 1~5 £3.10 / £4.70 / £5.90
Zone 1~6 £3.10 / £5.10 / £6.00

* Peak Time(월~금): 06:30~09:30, 16:00~19:00

* 자료: TRANSPORT FOR LONDON(<https://tfl.gov.uk/>)

다. 통신

핸드폰

통신업체에 가입 후 정기 사용료(후불)를 지불하거나 선불 충전카드(USIM)를 사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선불 충전카드는 가입이 필요 없고, 상점에서 USIM 카드 구입 후 바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후불방식보다는 다소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영국의 주요 무선통신업체로는 EE, O2, Vodafone, Three 등이 있는데, 시내 곳곳에 지점들이 있으므로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원하는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인터넷(와이파이)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전 세입자가 사용하던 서비스를 그대로 넘겨받은 후 명의만 바뀌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신청 및 가설에 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신규로 가입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가격 등을 비교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통신업체들이 인터넷+유선전화를 하나로 묶은 패키지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패키지 가격은 통신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15~30파운드이다. 일반적으로 최소 계약기간은 1년이며, 도중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한국과는 달리 영국은 인터넷 신청을 하면 보통 신청 후 2~4주 후에나 설치되므로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라. 관광명소

○ 국립 미술관(The National Gallery)

도시명	London
주소	Trafalgar Square, London WC2N 5DN
운영시간	토~목: 10:00~18:00 금: 10:00~21:00
휴무일	휴관일: 1월 1일, 12월 24~26일
명소소개	1824년 조지 4세의 요청에 따라 영국 정부가 38점의 미술 작품을 구매하면서 시작된 내셔널 갤러리는 현재 2,300점 이상의 서유럽의 그림들을 소장하고 연간 약 500만 명이 관람하는 런던 최고의 미술관이다. 1250~1900년 사이의 서유럽 미술품을 주로 소장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르네상스 시기의 이탈리아, 17세기 스페인 작품들이 유명하며 전시관은 4개관 46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고	전화: +44 020 7747 2885 홈페이지: https://www.nationalgallery.org.uk/

○ 자연사 박물관(Natural History Museum)

도시명	London
주소	Cromwell Rd, Kensington, London SW7 5BD
운영시간	매일: 10:00~17:50
휴무일	휴관일: 12월 24~26일
명소소개	사우스 켄싱턴에 위치해 있는 자연사 박물관은 지구 상에 있는 동식물들의 역사를 모아 놓은 곳으로 대영 박물관에서 분리해 1881년에 개관하였다. 영국 정부가 처음부터 박물관 건립을 목적으로 지은 건축물로 건물 자체의 아름다움으로도 유명하다. 박물관에는 거대한 공룡 화석이 많아 학생들과 아이들이 좋아하고, 겨울엔 박물관 옆쪽에 스케이트장을 개시한다. 그 외에도 5,500만 동물, 2,800만 곤충, 900만 화석, 50만 개 이상의 암석 등이 전시되어 있다.
비고	전화: +44 020 7942 5000 홈페이지: http://www.nhm.ac.uk/

○ 사치 갤러리(Saatchi Gallery)

도시명	London
주소	Duke of Yors HQ, King's Rd, Chelsea, London SW3 4RY
운영시간	매일: 10:00~18:00
휴무일	국경일
명소소개	<p>Contemporary Art의 대부로 불리는 Charles Saatchi에 의해 1985년 설립, 유명한 현대 예술가들 대신 알려지지 않은 신인 예술가 및 YBA(Young British Artists)의 발굴과 전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Charles Saatchi는 1988년 데미안 허스트가 16인의 골드스미스 컬리지 학생들과 기획한 전시회 이후 YBA의 작품에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신인 예술가 발굴을 시작하였으며, Saatchi Gallery는 90년대 영국 Contemporary Art의 산실 역할을 한다.</p> <p>설립 당시의 위치는 런던 북서부의 오래된 페인트 공장이었으나 2008년 10월 Chelsea에 위치한 Duke of York 빌딩으로 이전하였다.</p> <p>대표적인 컨템포러리 아트 Auction house인 Phillips de Pury and Company와 협력, 갤러리 내부에 신예 아티스트만을 위한 Phillips de Pury and Company 관을 운영하는 등 유망한 신진 미술가 발굴에 힘쓰고 있다.</p>
비고	<p>전화: +44 020 7811 3070</p> <p>홈페이지: https://www.saatchigallery.com/</p>

○ 과학 박물관(Science Museum)

도시명	London
주소	Exhibition Rd, Kensington, London SW7 2DD
운영시간	매일: 10:00~18:00
휴무일	휴관일: 12월 24~26일
명소소개	<p>1851년에 열린 제1회 만국박람회의 과학기술 관련 전시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1857년에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현 빅토리아 앨버트 미술관) 한쪽에 예술과 과학기술 전시부를 개설했다. 1964년 현재 위치로 옮겼으며, 1909년부터 과학 부문을 독립하여 현재 이름으로 바꾸었다.</p> <p>영국의 과학, 기술, 의학 발달사를 대표하는 중요한 기구, 기계류의 실물 등 산업혁명 관련 자료 전시되었다. 교육에 초점을 맞춰 놓은 박물관이며, 만지고 듣고 볼 수 있는 재미가 있다.</p>
비고	<p>전화: +44 020 7942 4000</p> <p>홈페이지: https://www.sciencemuseum.org.uk/</p>

○ 대영 박물관(British Museum)

도시명	London
주소	Great Russell St, Bloomsbury, London WC1B 3DG
운영시간	10:00~17:30
휴무일	휴관일: 1월 1일, 12월 24~26일

<p>명소소개</p>	<p>1753년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이자 영국 최대의 국립 박물관으로 현재 약 700만 점 소장하고 있다. 1753년 왕립 학술원장을 역임한 저명한 의사인 한스 슬론경 사망 후 그의 7만 점에 이르는 고미술 및 방대한 소장품을 정부가 매입, 로버트 코튼경의 장서와 옥스퍼드의 백작 로버트 할리의 수집품들을 합해 1759년부터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p> <p>94개의 전시실로 나누어 이집트와 그리스, 로마 등지에서 발굴된 귀중품들과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지로부터 온 광범위한 수집품들을 전시 중이다. 주요 전시물로는 1802년 프랑스에서 넘겨받은 상형문자를 해독하게 된 로제타 스톤(Rosetta Stone)을 비롯해 헨델의 메시아 원본, 이집트의 미이라 및 라머 니즈 2세 석상,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대헌장(Magna Carta), 셰익스피어의 친필 원본,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본, 이집트의 고고학 자료, 1816년에 수집한 엘긴 대리석 조각, 앗시리아의 날개 달린 황소상 등이 있다. 그 외 성서의 알렉산드리아 사본, 색슨의 연대기, 마그나카르타 등 옛 인쇄, 제본의 견본들은 고대 문헌으로서의 가치와 의미가 매우 높다. 2000년 11월 400m에 이르는 한국관(67전시실) 신설, 구석기 유물부터 청자, 백자 칠보 자개함, 국보급 보물과 조선 시대 초기 작품으로 사천왕상 등을 비롯하여 조선 후기 미술품 250여 점을 전시 중이다.</p>
<p>비고</p>	<p>전화: +44 020 7323 8000 홈페이지: https://www.britishmuseum.org/visiting/opening_times.aspx?lang=ko</p>

<자료원 : KOTRA 런던 무역관>

마. 식당

- 현지식당

o 디너 바이 헤스톤블루멘탈(Dinner by Heston Blumenthal)

<p>도시명</p>	<p>London</p>
<p>전화번호</p>	<p>020 7201 3833</p>
<p>주소</p>	<p>Mandarin Oriental Hyde Park 66 Knightsbridge, London SW1X 7LA</p>
<p>가격</p>	<p>약 50달러</p>
<p>영업시간</p>	<p>매일: 12:00~14:30, 18:30~22:30</p>
<p>휴무일</p>	<p>-</p>
<p>소개</p>	<p>하이드파크 남단에 위치, 미술랭가이드 2스타</p>
<p>비고</p>	<p>현재 코로나 19 영향으로 영업여부 및 시간, 판매타입(테이크아웃, 배달, 매장내식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p>

o 버너스 터번(Berners Tavern)

<p>도시명</p>	<p>London</p>
<p>전화번호</p>	<p>020 7908 7979</p>
<p>주소</p>	<p>Berners tavern 10 berners street London W1T 3N</p>
<p>가격</p>	<p>약 45달러</p>
<p>영업시간</p>	<p>월~금: 07:00~10:30, 12:00~24:00 토~일: 07:00~16:00, 17:00~24:00</p>

휴무일	-
소개	옥스퍼드 서커스와 토트넘코트역 사이에 위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비고	현재 코로나 19 영향으로 영업여부 및 시간, 판매타입(테이크아웃, 배달, 매장내식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 카페 모니코(Cafe Monico)

도시명	London
전화번호	020 3727 6161
주소	39-45 Shaftesbury Avenue, London, W1D 6LA
가격	약 17달러
영업시간	월~목: 11:30~24:00 금: 11:30~01:00 토: 10:00~01:00 일: 10:00~24:00
휴무일	-
소개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요리를 아우름. 소호에 위치
비고	현재 코로나 19 영향으로 영업여부 및 시간, 판매타입(테이크아웃, 배달, 매장내식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 아이비 레스토랑(Ivy Restaurant)

도시명	London
전화번호	020 7836 4751
주소	1-5 West Street, London, WC2H 9NQ
가격	약 20달러
영업시간	월~금: 12:00~23:30 토: 12:00~23:30 일: 12:00~22:30
휴무일	-
소개	레스터스퀘어 근처에 위치, 영국식 레스토랑
비고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여부 및 시간, 판매타입(테이크아웃, 배달, 매장내식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 포피스 피쉬앤칩스(Poppies Fish and Chips)

도시명	London
전화번호	020 7734 4845

주소	55-59 Old Compton St, Soho, London W1D 6HW
가격	약 17달러
영업시간	월~목: 11:00~23:00 금~토: 11:00~23:30 일: 11:00~22:30
휴무일	-
소개	런던에서 피쉬앤칩스로 가장 대표적인 음식점 중 하나
비고	현재 코로나 19 영향으로 영업여부 및 시간, 판매타입(테이크아웃, 배달, 매장내식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 칸델라 티 룸(Candella Tea Room)

도시명	London
전화번호	020 7937 4161
주소	34 Kensington Church Street, London, W8 4HA
가격	약 27달러
영업시간	월~금: 10:00~18:00 토~일: 10:00~19:00
휴무일	-
소개	영국 애프터눈티를 즐길 수 있는 작고 빈티지한 카페
비고	현재 코로나 19 영향으로 영업여부 및 시간, 판매타입(테이크아웃, 배달, 매장내식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자료원 : KOTRA 런던 무역관>

- 한국식당

○ 아리랑(Arirang)

도시명	London
전화번호	020 7437 6633
주소	31-32 Poland Street London W1F 8QT
가격	약 12달러
영업시간	월~금: 12:00~15:00, 18:00~23:00 토: 12:00~15:00, 18:00~23:00 일: 12:30~15:30, 17:30~22:30
휴무일	-
소개	삼겹살 포함 각종 고기 구이

비고	현재 코로나 19 영향으로 영업여부 및 시간, 판매타입(테이크아웃, 배달, 매장내식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	---

○ 김치(Kimchi)

도시명	London
전화번호	020 7430 0956
주소	71 High Holborn, London WC1V 6EA
가격	약 10달러
영업시간	월~금: 12:00~15:00, 17:00~22:30 토: 12:00~22:30 일: 12:00~22:00
휴무일	-
소개	퓨전한식
비고	현재 코로나 19 영향으로 영업여부 및 시간, 판매타입(테이크아웃, 배달, 매장내식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 아사달(Asadal)

도시명	London
전화번호	020 7430 9006
주소	224 High Holborn, London WC1V 7DA
가격	약 13달러
영업시간	월~토: 12:00~15:00, 18:00~23:00 일: 6:00~22:30
휴무일	-
소개	Holborn역 근처, 삼겹살이 인기
비고	현재 코로나 19 영향으로 영업여부 및 시간, 판매타입(테이크아웃, 배달, 매장내식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 서울 베이커리(Seoul Bakery)

도시명	London
전화번호	020 7248 8777
주소	14 Great Russell St, Bloomsbury, London WC1B 3NH
가격	약 8달러
영업시간	월, 수~일: 11:00~15:30, 17:00~19:30

휴무일	화요일
소개	토티엄 코트역 근처, 합리적인 가격
비고	현재 코로나 19 영향으로 영업여부 및 시간, 판매타입(테이크아웃, 배달, 매장내식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 요리(YORI)

도시명	London
전화번호	020 7836 3145
주소	15 Catherine St, Covent Garden, London WC2B 5JZ
가격	약 8달러
영업시간	월~일 : 12:00~23:00
휴무일	없음
소개	코벤트 가든 근처, 합리적인 가격, 다양한 음식
비고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여부 및 시간, 판매타입(테이크아웃, 배달, 매장내식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자료원 : 무역관 자체 검색 >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르메르디앙 피카딜리(Le Meridien Piccadilly)

도시명	London
주소	21 Piccadilly, London, W1J 0BH
전화번호	020 7734 8000
홈페이지	https://www.marriott.com/hotels/travel/lonpm-le-meridien-piccadilly
숙박료	약 365달러
소개	피카딜리에 위치한 5성급 호텔
비고	현재 코로나 19 영향으로 영업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 르네상스 찬스리코트 런던(Renesance Chancery Court)

도시명	London
주소	252 High Holborn, London, WC1V 7EN

전화번호	020 7781 8888
홈페이지	https://www.rosewoodhotels.com/en/london
숙박료	약 525달러
소개	홀본 지역에 위치한 5성급 호텔
비고	현재 코로나 19 영향으로 영업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 랑카스터 테라스 런던(Lancaster Terrace)

도시명	London
주소	Lancaster Terrace,London, W2 2TY
전화번호	020 7551 6000
홈페이지	https://www.royallancaster.com/
숙박료	약 325달러
소개	하이드파크 근처에 위치한 5성급 호텔
비고	현재 코로나 19 영향으로 영업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자료원 : 무역관 자체 검색 >

- 게스트하우스

○ 음뱃 호스텔(Wombat hostel)

도시명	London
주소	7 Dock St, Whitechapel, London E1 8LL
전화번호	020 7680 7600
홈페이지	https://www.wombats-hostels.com/
숙박료	약 54달러
소개	화이트채플에 위치
비고	현재 코로나 19 영향으로 영업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 소호스텔(SoHostel)

도시명	London
주소	91 Dean St, Soho, London W1D 3SY
전화번호	020 8821 5154
홈페이지	https://www.sohostel.co.uk/

숙박료	약 44달러
소개	토틀넘 코트역 근처에 위치
비고	현재 코로나 19 영향으로 영업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 클링크78(Clink78)

도시명	London
주소	78 Kings Cross Road, London WC1X 9QG
전화번호	020 7183 9400
홈페이지	https://www.clinkhostels.com/
숙박료	약 60달러
소개	킹스크로스역 근처에 위치
비고	현재 코로나 19 영향으로 영업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 제너레이터 런던(Generator London)

도시명	London
주소	37 Tavistock Pl, Saint Pancras, London WC1H 9SE
전화번호	020 7388 7666
홈페이지	https://staygenerator.com
숙박료	약 35달러
소개	킹스크로스역 근처에 위치
비고	현재 코로나 19 영향으로 영업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자료원 : KOTRA 런던 무역관 >

사. 치안

치안상황

여행 유의 단계: 외교부는 6.20.부 1개월간 전 국가지역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한 상태(2020. 7.15. 기준)

2018년 8월 14일(화) 오전 7시 37분경 영국 국회의사당(Houses of Parliament) 인근에서 차량 한 대가 의회 외부 보호벽을 들이받아 일부 보행자가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영국 경찰 당국은 해당 사건을 테러사건으로 간주하고 일대를 봉쇄했다.

런던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버킹엄 궁, 빅벤, 의사당, 웨스트민스터 사원 등이 있는 Westminster 지역은 소매치기 최다 발생지역으로 알려졌다. 런던의 Camden, Lambeth 지역도 소매치기 빈발지역이다.

야간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Elephant & Castle, Brixton, White Chapel, Bethnal Green, Hackney 등 런던의 주요 우범지역에는 주간에도 가급적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교통법에 따라 먼저 차를 세운 후 시동을 끄고 비상등을 켜다. 교통사고 때문에 인명피해 발생하였다면, 우선 응급번호인 999(응급 상황이 아닐 시는 101)로 전화해 경찰과 구급차를 불러 부상자를 응급 구조한다. 교통순찰차를 불러 사고 경위 조서를 꾸민 후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정비공장에 견인하도록 한다. 상대방 차의 색깔, 번호, 운전자 이름, 신분증 주소 등을 확인한 후 주위에 있는 증인을 확보하고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회사에 최대한 빨리 전화해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으며, 사건 경위가 파악될 때까지는 선불리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고를 대비해 운전 시에는 항상 신분증, 운전면허증, 보험가입증서, 차량정비 등록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 차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 2~3곳 정도의 견적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

관광이나 방문 등으로 입국한 단기 체류자들은 사고 및 응급(Accident & Emergency) 시에는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으나, 이러한 치료를 권리로 주장할 수는 없고 사고 응급 여부에 해당하는지는 의사의 판단에 달려 있다. 또한 진료비 청구에 관한 규정이 병원마다 다르며, 여행객이 병원 이용 시에는 진료비만으로도 200파운드(약 30만 원) 이상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의료비가 포함되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2) 여권/지갑 분실

여권이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복사본 및 휴대폰에 사본을 사진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여권을 분실할 경우 현지 경찰에 분실신고를 통해 신고증명서를 받고 대사관에서 재발급할 때 이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 대사관에 신고하면 여행증명서(단기여행 등 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대용증명서)나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며, 여행증명서만으로도 한국으로의 귀국이 가능하다.

○ 본인 직접신청제도

- 여권을 분실했을 때 제출서류를 구비한 후 직접 대사관을 방문해서 여권을 신청해야 한다.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인 한국인 부모가 대리 접수 가능)

○ 발급 여권 종류 및 발급기간

- 복수전자여권

교민, 유학생 등 영국에 장기 거주(6개월 이상) 시 신청할 수 있다.

발급기간은 3주 정도 소요된다.

- 여행자증명서(Travel Document) 또는 단수여권

- 국외 여행 중에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 여권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히 귀국하거나 여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모든 서류가 빠짐없이 준비되고 접수 시 신원에 문제가 없을 경우 1~3일 정도 소요된다.

○ 구비 서류

- 여권 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여행증명서 및 단수여권은 여권용 사진 2장 필요/ 전자여권은 대사관에서 무료 촬영 가능)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 사진

* 사진 길이는 3.5cm × 4.5cm이며, 사진 안의 얼굴의 길이는 2.5cm 이상 3.5cm 이내

* 색안경과 모자 착용 금지

* 흰색 바탕의 무배경 사진

- 여권 분실신고서, 각서

- 신분 확인 서류

- * 사진이 나와 있는 대한민국 신분증 또는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분실한 여권 및 구여권의 사본도 가능)
- * 관광객은 항공권 사본(e-ticket이나 여행사에서 보낸 confirmation e-mail도 가능)

o 주재국 체류허가 관련 서류(영국에 체류하고 있는 교민, 유학생일 경우)

- 사증 또는 영주권 증명서류
- 재직증명서(인적사항, 근무 시작일, 근무예정기간 및 동반가족 명시)
- 재학증명서(입학일, 전공과목, 이수과정 및 졸업예정일 명시)

o 여권 발급 수수료(전자여권)

- 10년 기준: 48페이지 - 41파운드/ 24페이지 - 38.5파운드
- 5년 기준: 48페이지 - 35파운드/ 24페이지 - 32.5파운드
- 5년 미만: 11.5 파운드
- 임시여권: 여행증명서 - 5.5파운드, 단수여권 - 41파운드

* 세부내용은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http://overseas.mofa.go.kr>)

3) 응급 전화번호

병원 응급실(앰블런스): 999

경찰서: 999

소방서: 999

범죄, 테러 등 위급사항 시: 999

기타 일반 사건·사고 신고 시: 101

8.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1) 교통과 학군 등 입지를 고려

영국에서 집을 구하는 데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은 가장 중요한 예산 이외에도 자녀가 취학할 학교의 위치, 지하철역과의 거리, 쇼핑 등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과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주요 주택 중개 사이트

주택 물색은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인 <https://www.rightmove.co.uk/> 또는 <https://www.zoopla.co.uk/>에 올라오는 임대 광고를 검색하여 얻는 경우도 있으며,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지역마다 체인을 가진 Foxton, Hawes & Co 등과 같은 지역 부동산을 접촉하여 매물 정보를 확인한다. 인터넷이 대중화가 된 요즘은 대부분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고 있으며, 매물 정보를 게재한 해당 부동산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정보와 뷰잉 가능 여부를 문의한다.

3) 주택 매입 및 임대 신청 과정

주택 매입 시에는 변호사를 통해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 임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 수수료는 집세의 8~12%로 집주인이 내게 돼 있으며, 임차인에게는 계약서 작성비 명목으로 100~150파운드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택 임차 시에는 특히 향후 임대 계약기간 만료 후 원상 복구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 전에 비품 목록(inventory list)을 작성, 주인과 임차인이 각각 1부씩 보관, 퇴거 시 상호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계약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 만료일 1~3개월 전에 반드시 편지 또는 이메일(written letter)로 집주인과 중개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영국의 주택은 크게 개인 주택(House)과 연립주택(Flat)으로 나뉘며, 개인 주택도 건물 형태에 따라 완전 단독 주택인 Detached House, 두 가구가 한 건물을 절반씩 나누어 사용하는 Semi Detached House, 여러 가구가 사는 Terraced House 등으로 나뉜다.

전화

전화는 국영 BT(British Telecom)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보통 BT 인터넷(BT Broadband)과 패키지로 신청하거나 Sky, Virgin Media, Talk Talk, Plusnet 등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 주택의 전화번호 발급 및 라인 개설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영국 전역에서 국번 없이 152번 BT Residential Service로 전화하여 요청하면 전화선이 있는 경우 전화국원의 가정방문 없이 자동으로 신청 3일 이내에 개통되지만, 인터넷 설치의 지역에 따라 2주일에서 1달 정도 소요된다.

전압/플러그

영국의 전기 전압은 240V, 50Hz로 우리나라의 220V, 60Hz 전기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2구 콘센트를 사용하는 데 반해 영국의 전원 콘센트는 전원을 공급하는 두 개의 막대와 감전 방지를 위한 접지용 막대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3구 형식으로, 변압기가 필요하다. 벽에 달린 콘센트 대부분은 스위치가 있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스위치를 끌 수 있게 돼 있다.

식수

영국의 물은 석회질이 함유되어 있어 석회수가 다소 생소한 사람들은 정화되지 않은 석회수를 먹으면 배탈이나 피부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물 정화장치 및 정수기능의 필터기를 이용해 수돗물을 한 번 걸러서 마시거나 생수, 탄산수를 구매해 마시는 방법, 한 달 정도 지속되는 휴대용 필터가 달린 텀블러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영국에서 신차를 구매하고자 한다면 자동차 대리점에 가서 직접 시승을 해본 후, 할부, 금리 등의 계약조건을 따져 구매하면 된다.

영국은 중고차 매매 절차가 간단하여 비교적 쉽게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으며, 중고차 구입은 크게 개인 거래, 중고차 딜러, 혹은 카자이언트, 오토트레이더(대표적인 중고차 매매사이트들)로 이루어진다.

*<https://www.cargiant.co.uk>

**<https://www.autotrader.co.uk>

- 거래 시 차량 상태에 대한 면밀한 체크가 필수이며, 대금을 지불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 차량 등록증 확인: 차량 소유인과 거래인 일치 여부
 - M.O.T. 증명서의 날짜 확인: 매년 실시되는 자동차 안전 관련 파트에 대한 검사기록
 - 보증기간 확인: 보통 대금지불 영수증에 언급되며, 대체로 비소모성 부품 (엔진, T/M 등)에 대한 보증 기간(1년 혹은 2년)
 - 자동차 정비 이력서 확인: 차량 구입 초기부터 정기적으로 차량점검을 받은 이력
 - 차량 등록증 명의 변경: 개인적으로 차량을 거래할 경우 매도인과 함께 차량 명의 변경 신청란(차량 등록증의 일부분)을 작성 후 DVLA로 우편송부하면 본인 명의로 변경된 등록증을 약 4주 후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영국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차들은 수동(Manual) 방식으로, 중고차 거래에서도 오토(Auto)방식의 차는 그 수가 많지 않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다.

차량가격

1) 신차

- 신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영국 내 판매 가격은 각각의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 주요 자동차 3사(벤츠, BMW, 아우디) 가격
 - 벤츠: <https://www.mercedes-benz.co.uk/passengercars.html>
 - BMW: <https://www.bmw.co.uk/bmw-cars>
 - 아우디: <https://beta.audi.co.uk/models.html>

2) 중고차

- 영국의 중고차 가격은 대표적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 오토 트레이더: <https://www.autotrader.co.uk>
 - 카자이언트 : <https://www.cargiant.co.uk>

운전면허 취득

한국은 영국과 운전면허의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된 국가로, 한국운전면허증을 영국 운전면허국(DVLA; Driving and Vehicle Licensing Agency)에 제출한 후 영국운전면허증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 최초 발급지가 한국이 아니라도 아래 지정된 제3국인 경우라면 영국운전면허증 교부 대상이 된다.(호주, 바베이도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캐나다, 포클랜드제도, 페도 제도, 홍콩, 일본, 모나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짐바브웨)

교환신청은 상호인정 체결된 국가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영국에 입국해 5년 미만 거주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영국 내 거주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입국한 날로부터 비자를 1년 이상 받은 자여야 한다(관광비자 제외).

영국 거주 최초 1년까지는 국제면허증으로 영국 내 운전이 가능하지만 1년 경과 후에는 영국면허로 교환하여야 하며, 이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임시면허증을 신청하고 이론 및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면허증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교환을 받을 수 있는 “5년 미만 거주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영국 운전면허국(DVLA)에서 심사한다.

영국 운전면허증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수수료 및 시험은 다음과 같다.

- 구비서류: 외국면허증 원본, 여권 원본, DVLA의 D1 양식(우체국에서 교부),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면허증의 영문 번역본 및 대사관 공증서

- 면허증 교환 발급 수수료는 43파운드이며 소요기간은 3주 이상이다.

- 면허증 교환 발급: <https://www.gov.uk/exchange-foreign-driving-licence>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 Barclays 은행: 1690년 설립된 글로벌 은행으로,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투자은행과 별개로 개인뱅킹, 기업뱅킹, 자산관리, 투자 관리의 4대 핵심 사업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 HSBC 은행: 홍콩, 상하이 은행(Hongkong Shanghai Banking Corporation)의 약자로, 1865년 당시 영국령이었던 홍콩에서 처음 설립, 글로벌 은행으로 발돋움했으며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다.

- Natwest 은행: 국립 웨스트민스터 은행(National Westminster Bank)의 약자로, 1968년 국립 지방은행(National Provincial Bank)과 웨스트민스터 은행(Westminster Bank)가 합병되면서 설립됐으며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다.

계좌 개설방법

영국에 있는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려면 예금주의 주소지 증명, 신분증(여권)이 필요하다. 당좌예금 계좌는 잔액에 대해 이자가 붙지 않고 개인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계좌이다. 은행 계좌 개설은 온라인과 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나, 은행 방문 시 예약이 필요한 점이 한국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직불카드는 은행 계좌 개설 일주일 후 우편으로 전달되며, 카드 핀(Pin) 비밀번호는 카드와 별도의 우편으로 전달된다. 그 후 카드는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수령한 카드 핀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면 해당 은행 또는 ATM에서 변경할 수 있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 Halcyon School

도시명	런던
커리큘럼	문학, 수학, 과학, 지리학, 역사, 예술, 드라마, 음악, 디자인, 컴퓨터

학비	등록비: 200파운드 한학기 기준(1년에 3학기) Year 6~9: 8,391파운드 Year 10: 8,616파운드 Year 11~12: 8,784파운드
홈페이지	https://halcyonschool.com/
비고	하이드 파크 근처에 위치한 국제학교

◦ Westminster School

도시명	런던
커리큘럼	영어, 수학, 과학, 지리학, 역사, 종교, 프랑스어, 예술, 드라마, 음악, 디자인, 컴퓨터
학비	기숙학교: 1년 기준 41,607파운드
홈페이지	https://www.westminster.org.uk/wgs/
비고	웨스트민스터 사원 근처에 위치, 명문 사립학교

◦ St Pauls School

도시명	런던
커리큘럼	영어, 수학, 과학, 지리학, 역사, 종교, 프랑스어, 예술, 드라마, 음악, 디자인, 컴퓨터, 라틴어
학비	등록비: 175파운드 한학기 기준(1년에 3학기) 주니어: 6,906파운드 시니어: 8,636파운드
홈페이지	https://www.stpaulsschool.org.uk/
비고	명문 국제학교, 남학생 학교와 여학생 학교가 따로 있음.

<자료원 : KOTRA 런던 무역관>

- 현지학교

◦ City Of London School

도시명	런던
커리큘럼	영어, 수학, 과학, 컴퓨터, 역사, 음악, 미술, 체육, 외국어(프랑스어, 중국어)
학비	한 학기 약 6,313파운드
홈페이지	https://www.cityoflondonschool.org.uk/
비고	세인트폴 대성당 근처에 위치, 남학교

◦ Guildford High School for Girls

도시명	런던
커리큘럼	영어, 수학, 과학, 컴퓨터, 역사, 음악, 미술, 체육, 종교, 외국어(프랑스어, 라틴어)
학비	한 학기 기준 (1년에 3학기) 리셉션-Year 1: 3,634 파운드 Year 2: 4,177 파운드 Year 3-6: 4,719 파운드 Year 7-Sixth form: 5,834 파운드
홈페이지	https://www.guildfordhigh.co.uk/
비고	런던 남서쪽에 위치, 여학교

○ City of London School for Girls

도시명	런던
커리큘럼	영어, 수학, 과학, 컴퓨터, 역사, 음악, 미술, 체육, 종교, 외국어(프랑스어, 라틴어), 지리학
학비	한 학기 약 6404파운드
홈페이지	https://www.clsg.org.uk/
비고	세인트폴 대성당 근처에 위치, 여학교

<자료원 : KOTRA 런던 무역관>

마. 병원

○ St Thomas Hospital

도시명	런던
주소	Westminster Bridge Rd, Lambeth, London SE1 7E020 7188 7188H
전화번호	020 7188 7188
진료과목	종합병원

○ University College Hospital

도시명	런던
주소	235 Euston Rd, Fitzrovia, London NW1 2BU
전화번호	020 3456 7890
진료과목	종합병원

◦ St Bartholomews Hospital

도시명	런던
주소	W Smithfield, London EC1A 7BE
전화번호	020 7377 7000
진료과목	종합병원

<자료원 : KOTRA 런던 무역관>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비스터빌리지(Bicester Village)

도시명	Bicester
주소	50 Pingle Drive, Oxon, OX26 6WD
홈페이지	https://www.bicestervillage.com/en/home/
비고	각종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 할인 아울렛(버버리, 던힐, 멀버리, 발리, 아쿠아 스쿠탐, 페레가모, 구찌 등)

◦ 웨스트필드(Westfield)

도시명	London
주소	Westfield, Centre Management Suite, Unit 4006, Ariel Way, London, W12 7GF
홈페이지	https://uk.westfield.com/london
비고	런던 내 최대 규모의 쇼핑몰 식품(쇼핑몰 내 푸드코트), 의류(유명 디자이너 브랜드), 생활 잡화류 및 영화상영관

◦ 포트넘 앤 매이슨 백화점(Fortnum and Mason)

도시명	London
주소	181 Piccadilly, London, W1A 1ER
홈페이지	https://www.fortnumandmason.com
비고	1707년 오픈한 300년 전통을 자랑하는 백화점 - 차, 소스, 와인을 비롯한 고급 기호품 취급

◦ 버버리 팩토리숍(Burberry Factory Shop)

도시명	London
-----	--------

주소	29 Chatham Place, Hackney, London E9 6LP
홈페이지	https://uk.burberry.com/outlet-stores
비고	런던의 북동쪽에 있으며, 과거에는 재고품이나 하자품을 판매하는 팩토리 아울렛이었으나 현재에는 현대식 직영매장 - 의류, 가방, 신발 등 취급

<자료원 : KOTRA 런던 무역관>

- 식품점

o 버로우마켓(Borough Market)

도시명	런던
주소	8 Southwark St, London SE1 1TL
취급 식료품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

o 스피탈필즈마켓(Old Spitalfields Market)

도시명	런던
주소	16 Horner Square, London E1 6EW
취급 식료품	각종 먹거리와 수공예품, 옷, 신발 등

o 브릭레인마켓(Brick Lane Market)

도시명	런던
주소	91 Brick Ln, London E1 6QR
취급 식료품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

<자료원 : KOTRA 런던 무역관>

- 기타 편의시설

o Oasis 스포츠센터

도시명	런던
주소	32 Endell St, London WC2H 9AG
홈페이지	https://www.better.org.uk/leisure-centre/london/camden/oasis-sports-
소개	토틸넘 코트역 근처 종합 운동시설

o Urban 골프 연습장

도시명	런던
주소	12 Smithfield St, Farringdon, London EC1A 9LA

홈페이지	https://urbangolf.co.uk/
소개	실내 골프연습장

<자료원 : KOTRA 런던 무역관>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신정(New Year's Day)	2020-01-01	
성(聖) 금요일(Good Friday)	2020-04-10	
부활절(Easter Monday)	2020-04-13	
뱅크 홀리데이(Early May Bank Holiday)	2020-05-08	
뱅크 홀리데이(Spring Bank Holiday)	2020-05-25	
뱅크 홀리데이(Summer Bank Holiday)	2020-08-31	
크리스마스(Christmas Day)	2020-12-25	
박싱데이(Boxing Day)	2020-12-28	대체휴일

<자료원 : 영국 정부 홈페이지 (GOV.UK)>

9. KOTRA 무역관 안내

런던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1st Floor, Brettenham House North, 12-13 Lancaster Place, London WC2E 7EN
- 전화번호: +44 020-7520-5300
- 이메일: kotra@kotra.co.uk
- 홈페이지: <https://www.kotra.or.kr/KBC/london>

공항-무역관 이동

히드로 공항에서 런던 해외무역관으로 오는 길은 다음과 같다.

- 방법 1. 지하철
 - 도착 항공편에 따라 터미널 1~5로 나뉘어 있다.
 - 히드로공항을 경유하는 지하철은 Piccadilly Line으로 도착 항공편에 따라 Heathrow Terminals 1, 2, 3역(1개역임)과 Heathrow Terminal 4역, 5역 등 3개 역으로 나뉜다.
 - 공항건물 안에서 지하철역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Underground 안내판을 따라가면 된다.
 - 하차역: Charing Cross 역에서 하차 후 Strand Street로 나간 후 Waterloo Bridge를 향해 200m 정도 걸으면 다리 입구 바로 전 오른쪽 건물(Brettenham House) 1층에 무역관이 입주해 있다(* 한국식으로 2층)
 - 공항에서 Charing Cross 역까지의 편도요금: 시간대에 따라 상이하며, 약 3파운드~5파운드 가량이다.
 - 자동판매기에서 티켓 구입: 먼저 Adult Single을 누른 후 판매기 전면에 표시된 목적지 지하철역 이름(알파벳순)을 찾아 누르면 요금이 나타나며 동전을 넣으면 잔돈과 표가 나온다.
 - Ticket Assistance 창구에서 역무원에게 목적지 역 이름을 말하고 표를 구입하면 된다.
 - 소요시간: 약 1시간
- 방법 2. Heathrow Express
 - 히드로공항에서 런던 시내 Paddington 역까지 운행하는 급행열차로 15~20분 정도 소요된다.
 - Paddington역에서 지하철로 환승하여 Charing Cross 역에서 하차하면 됨. 히드로공항에서 Paddington 역까지 기차요금은 22~25파운드이다.
- 방법 3. 택시
 - 런던의 택시는 '오스틴'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것으로 대부분 검은색이어서 일면 블랙캡(Black Cab)으로 불린다.
 - 짐을 찾고 밖으로 바로 나오면 택시 정류장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운전사에게 무역관 주소를 보여주면 된다.
 - 요금: 약 85~100파운드 정도. 탑승자 수, 수하물 개수, 심야시간대 할증 등에 따라 요금이 추가될 수 있다.
 - 소요시간: 50분
 - 요금 지불 시 금액의 약 10%를 팁으로 주어야 한다
- 건물 도착 후 로비 Security Desk에서 방문처를 밝히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역관에 유선으로 확인 후 출입증을 제공해 준다. 무역관의 확인을 위해 방문 전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방문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다.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